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월 4일(음력 12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559 호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동국대 佛文硏

중점연구소 지정

한국학술진흥재단, 9년간 21억 재정 지원
연구 주제 '아시아 근·현대불교문화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 · 이하 불문연)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지정돼, 9년간 약 21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동국대 측의 대응투자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9년간 약 40억 원이 불교문화연구원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불교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 연구소 가운데에는 불문연을 비롯해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등 6곳이 선정됐다.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연구소의 연구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해 젊은 연구자 양성 촉진 및 특성화 · 전문화 ·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불문연이 지원받게 될 연구의 주제는 '아시아 근 · 현대 불교문화 연구.' 연구목적은 한 · 중 · 일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시아 근 · 현대 불교문화 연구'라는 주제는 한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선행 연구사례가 없어서 연구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불문연은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문화의 변용비교(1단계) ▲아시아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2단계) ▲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와 한국불교의 현대적 모색(3단계) 등의 주제를 설정했다. 과제 수행 기간은 각 단계별로 3년이며, 총 9년이다.

1단계 과제에는 총괄연구책임자인 원장을 비롯해 과제책임자 김상일 교수(국문과), 정병준(사학과), 강석원 교수(일문과) 교수, 박사 취득자 9명 등 20여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제책임자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 이 연구는 학제간협동과정의 특성을 띤다.

중점연구소의 과제 수행은 '아시아불교문화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 정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불문연은 1단계 3년차에 6개 강좌를 시험적으로 개설하고, 2단계에는 '아시아 불교문화 협동과정' 석사 과정을, 3단계에는 박사과정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간 불교학이 주로 교리나 경전에 치우친 가운데, 근대기 불교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다. 불교를 동북아시아 3국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없었다.

이 점에서 불교학을 사회학적 · 지역학적 개념으로 확대한 아시아 불교문화학은 불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점연구소 지정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동국대 발전 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동국대 내 연구소 가운데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곳은 불문연이 처음으로, 불교학의 경쟁력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연구원장 박경준 교수는 "아시아불교문화학은 한중일 3국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불교를 매개로 한 협력과 화해의 가치를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지관 스님 정진수좌들 격려"

폭설로 산중 사찰이 고립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동안거 결제중인 선방을 찾아 대중공양을 올리고 수좌들을 격려했다. 지관 스님(사진 앞줄 오른쪽)은 지난 12월 26일 장성 백양사 고불총림을 방문하여 "폭설과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정진중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자 한다"고 청했다. 지선 스님(운문선원 유나 · 앞줄 왼쪽) 안내로 운문선원을 찾은 지관 스님은 "계속되는 폭설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는 스님들을 보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장성 백양사=박재완 기자

폭설피해성금 1억 전달
조계종 MBC에

조계종이 폭설 피해 복구 성금 1억원을 MBC 문화방송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8일 최문순 사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폭설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성금으로나마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문순 사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남동우 기자

소수종교 '군종장교' 길 열리나?
윤 국방 "전향적 검토" … 교계 "대책세워야"

국방부가 소수종교의 군종선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원불교 등 소수종교의 군 선교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천태 · 진각종 산하 종립대학생의 군승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군포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2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종교의 군종장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존의 군 인사뿐만 아니라 민간 종교인들도 참여해 군종장교 운용제도 개선을 검토할 '정책공동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종장교 파견을 위해 노력해온 원불교, SGI 등 소수종교단체들은 군선교를 통해 교세를 크게 넓힐 기회를 잡게 될 전망이다.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실무적인 검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며 "수백 개 군부대에 흩어져 복무중인 1600여 명 원불교 신자를 위해 군종장교를 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에서는 소수종교의 군선교 참여에 대비해 군포교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불교계 군포교 관계자는 "SGI 등 소수종교가 적극적으로 인적 · 자원을 투자해 군선교에 나선다면 군불교의 상대적인 위축도 예측된다"며 "불교계가 하루빨리 조계종 이외 종단의 군승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군포교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교와 유사한 교상체계를 갖춘 원불교의 진출은 군불교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스타들의 나눔 … 종교도 초월
불자 장동건 '생명나눔'에 5천만원 전달
기독교인 이천수 상락원 아이들과 포옹





유난히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연말, 불교계 복지기관과 단체에 유명선수 · 배우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12월 26일 불자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장동건씨(사진 왼쪽)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씨는 2001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왔으며 같은 해 5월, 각막기증 신청자로 등록했다. 또 장동건씨는 매달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며 '생명나눔'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루 뒤인 12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의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원장 지웅)에는 2005 K리그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이천수(울산 현대 · 24) 선수가 찾아왔다.

이날 상락원 아동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천수 선수는 자필 사인 축구공 10개와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천수 선수는 "이곳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골을 한번 넣을 때마다 후원금을 내놓겠다"며 지속적으로 승가원과 인연을 맺어 갈 것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물 마르는 천성산 … "진상 규명해야"

터널건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천성산 계곡의 물이 마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계곡물 고갈 여부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공동대표 원택 등)은 12월 26일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중의 하나인 13-4공구 원효터널의 사갱터널 출구 근처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소남리, 주진리 일대의 계곡 맞이한 갈수기에 말라버렸다"며 "계곡을 흐르는 표면뿐만 아니라 계곡 바위와 모래 틈 속까지 완전히 물이 고갈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계곡 근처의 사갱 공사가 지하수맥을 건드려 계곡으로 흘러야 할 물이 엉뚱하게 사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터널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계곡물 고갈과 터널공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지질학과 함세영 교수도 "지하수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갱 때문"이라며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은 천천히 진행되는데, 바로 사갱의 영향이 지금에서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율 스님 역시 '도롱뇽 소송'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곡물 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 해왔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계곡 물이 말랐다면 지금 갈수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황룡사 복원계획 올해 수립

신라 황룡사 및 월정교 복원 기본계획이 올해 내 수립돼 단계별로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재연구소는 황룡사 복원을 맡아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4월 중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유적 복원의 방법론과 제반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통문화학교는 올해 상반기 신라시대 교량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출토석재 정밀고증, 교량형태 확정을 통해 2007년 복원 완료키로 했다.

남동우 기자

금주 20면 발행

韓國文化遺産 불교유적 BuddhistRelics 佛教遺産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East Three-storied Stone Pagoda in Suljeong-ri, Changnyeong (National Treasure No.34)
昌寧 述亭里 東3層 石塔(國寶 第34號) 1962년 12월 20일 지정
8세기

國寶 第34號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 華嚴經

창녕땅에서
천년 후 다시 법등을 밝히니
대전법(大傳法)의 혜일(慧日)은
밝고 높구나.
화왕산 아래 동탑에서
광명이 치솟으니
불일(佛日)은 영겁(永劫)토록
길이 빛나리라.

• 규 격 : 탑높이 5.75m
• 재 료 : 화강석(化崗石)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0번지
• 명 칭 :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1965년 12월 24일 해체 복원 당시 3층 몸돌탑속에서 출토

'사리병'은 전국에 9개 밖에 없는 희소유물이며 담황색의 사리병은 동탑의 사리병이 유일합니다.

탑 안에 사리7과가 모셔져 있는 불사리 탑입니다. 천년의 아름다움을 몰랐던 성지(聖地)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천년동안 무관심하고 방치함에 훼손 조상님의 솜씨 말이 없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으로 단아한 아름다움이 불국사의 석가탑에 버금가는 석탑이다.
This pagoda, which houses sarira, features graceful beauty comparable to that of Seokgatap Pagoda in Bulguksa Temple.
仏の真身舎利を祭っている塔で、淡白な美しさが慶州仏国寺の釈迦塔に次ぐ石塔である。

법회안내 매월(음) 초하루(음) 18일(음) 24일

國立中央博物館 1991
韓國 佛舍利莊嚴具 遺物目錄

舍利具 ()은 舍利具의 문화재 지정번호	時 代	原所在地	發見遺物	所藏處 ()은 塔, 佛의 吏	發見場所	參考文獻
昌寧 述亭里 東三層石塔 舍利具	統一新羅	慶南 昌寧郡 昌寧邑 述亭里	靑銅有蓋盞形舍利器, 啖黃色琉璃舍利甁, 卵白色舍利7粒, 圓形小品, 五色 구슬9	지하수장고 2003년 2월 19일 찾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공개	三層塔身 方形舍利	金周泰「昌寧 述亭里 東三層 石塔의 舍利具」, 「考古美術」7-5, (19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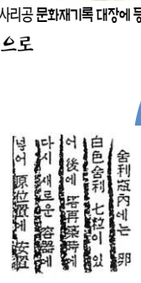
1200년 전 청동잔형사리공 문화재기록 대장에 등록 (신수 17850)



• 담황색 사리병 특수촬영 사진

문화재기록 대장에 등록 (신수 17851)

부처님의 현몽으로
청소 탑돌이
절을 하면서
탑에서
금강경 법화경
독경기도



높이 : 2.5cm
직경 : 1.5cm

불사리탑
이 자리에 오시면
시계방향으로 탑돌이 합시다.
거룩하신 부처님「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3번, 7번, 9번, 21번, 49번, 108번
각자 인연공덕으로
자기 소원 한가지는
꼭 이루어집니다.

축 문화재청 2005년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유산 문화재지킴 표창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무념으로 바라보며
절터 자리를 천 여년 지켜온
국보 34호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635-807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31-3
E-mail:buddha3435@yahoo.co.kr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혜일 지킴이
창녕 술정리 동3층석탑
국보 제34호 동탑보호소



대한불교조계종 仁陽寺
주지 一禪
전화 : 055)533-9921 . FAX055)533-9903
H • P 017-586-1000

탑돌이 반야심경 봉송
매일 오후 7시 탑돌이 정진

제9회 국보 제34호 동탑제
2006년 11월 7일 오전 10시 ~ 11시

국보 제34호 동탑제 : 매년 양력 11월 7일 오전 10시 ~ 11시

• 인양사 복원불사 동참계좌 •
우체국 : 610238-01-002593 인양사

昌寧 Changnyeong
국보 제34호
법당 인양사

부처님 도량을 짓겠습니다

▶ 부처님 스투파 인터넷 운영자 동아일보, KBS1 TV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리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一禪 慧日 합장

누구에게나 말없이 들려주는 석탑의 가르침
• 참선정진 : 매월 3주 토요일 오전 10시

마하반야바라밀

인터뷰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 전개 일면 스님(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군장병 절반이상 불자로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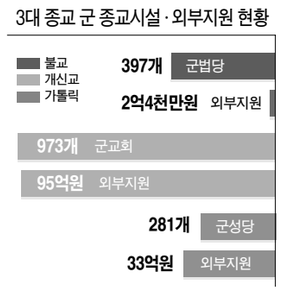
군법당·사찰·기업 결연운동으로 군포교 활성화 실현

병영 문화에 맞는 전략구축…만인회 결성 등 전방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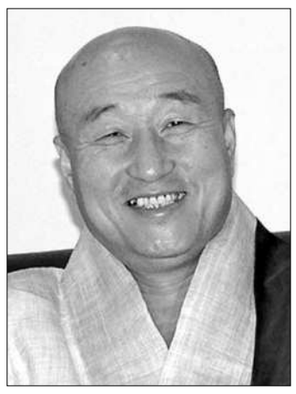
"전방지역에는 2명의 군법사가 15개가 넘는 군법당을 담당해야 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종병이 테이프를 틀어놓고 법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당이 없어서 개조된 막사에서 군법사 없이 자체법회를 여는 곳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군불교의 현실이에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사진)에게 '군포교 활성화'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기존의 군불교위원회를 군종교구로 발전시키면서 군포교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군포교의 어려운 여건은 나아진게 없다.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불교계의 관심과 후원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2004년 국방부가 조사한 군 신자 현황을 보면, 불교는 15만여명으로 28만명에 달하는 개신교 보다 13만명이나 적다. 이를 지도할 군종장교의 수에서는 더욱 열악해 불교는 개신교 27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6명에 머물러 있다. 종교시설로 따진다면 군불교의 열악한 여건은 극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현재 군법당은 397곳으로 군교회 973개소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군불교 상황'은 외형적인 수치 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군내 인력과 시설로 펼쳐지는 군포교 활동보다 군 외부에서 지원되는 인력과 재정 등의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불교계의 지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 턱없이 못하는 점도 군포교 현장의 암울한 한 단면이다. "불교계의 외부 지원은 근래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양적이든 질적이든 뒤쳐진다"는 군법사들의 볼멘소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일면 스님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구 출범과 함께 '군포교의 성공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기약하는 희망'이라는 표어 아래 달라진 병영문화에 맞는 포교전략 구축과 군 장병 50% 불자화를 군종교구의 목표로 세웠다. 만인회 결성을 비롯해 후원 조직, 재원 조성 등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도 선정했다. 본지와 함께 진행하는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도 군포교 활성화에 상당한 활력를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으로 꼽고 있다.

"군종교구는 2006년을 군포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전개할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대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군법당과 사찰, 기업이 다함께 힘을 모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봉영 기자

호법부 중앙감찰에 김갑영 군법사 임명

조계종 호법부는 12월 29일 중앙감찰에 김갑영 군종교구 호법국장을 임명했다.

이와 관련 호법부는 "업무 특성상 호법활동이 미미했던 군종교구 호법업무 회복과 추진을 위해 임명하게 됐다"며 "향후 종단과 군종교구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호법 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대종도 신뢰구축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영 중앙감찰은 1978년 사미계 82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88년 육군 중위로 임관한 김갑영 중앙감찰은 육군3사관학교 군종법사 및 군종 참모 등을 역임한 뒤 현재 5군단 군종참모를 수행중이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선거법 올해 개정될까?

청정선거운동본부, 총무원장에 제안서 전달

조계종 선거법 개정안이 올해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7일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이하 청정선거운동본부) 집행부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은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현재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다"며 "올해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정선거운동본부는 지난 9월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출범해 청정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서약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끌어낸 뒤 선거가 끝난 다음 해체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승가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포교"라고 지적한 뒤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준 청정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前 집행위원장 금강스님은 "32대 집행부 출범 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보단이 31대보다 확대됐지만 항상 종단 근처에 계셨던 스님들로 구성됐다"며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일부 비개혁적인 스님들이 특보로 임명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처음 소임을 맡으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적한 점들도 잘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청정선거운동본부는 '제32대 총무원장선거를 치루고 난 후 총무원에 올리는 제안'을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청정선거운동본부는 ▲현행 간접선거를 산중총회법에 준하는 직접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는 교구본사 주지 2인과 중앙종회의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공약제를 실시해 종책과 선거운동원을 미리 밝혀야 한다 ▲선거인단의 여비는 종단에서 지급해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1사단 수색대대 법당 첫 결연

김포 용화사 정기법회 지원·장병 상담
소주통상 법회·각종 행사등에 물품지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이 '2006년 군포교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1군법당 1사찰 1기업 후원 결연 맺기' 운동을 본격 전개하는 가운데, 캠페인 시작 1주일만에 소주통상과 김포 용화사, 1사단 수색대 법당이 첫 번째 결연을 맺었다.


지관 스님


김진관 대표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현재 김포지역 17사단 101연대와 포병대대에서 한 달에 한번 위문법회와 상담활동을 하는 지관 스님은 "1사단 수색대대 불자들이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고 상담을 통해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주통상 김진관 대표도 1사단 수색대 법당 지원을 약속했다. 이미 2군데 군부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대표는 "법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불교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법기 군법사(1사단)는 "군법사 2명이 15개에 달하는 군법당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사단 수색대대는 50여 명의 군불자들이 자체적으로 법회를 보고 있다"며 "이제는 여법한 법회를 봉행하게 돼 기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강유신 기자

누구나 캠페인 동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합니다.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합니다.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을 지원합니다.

▷**정기적인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합니다.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합니다.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의식곡 소리통일 시도 진각종 진각합창단

진각종 의식곡에 대한 소리통일화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서울교구 진각합창단(단장 대성지)은 '진각종 소리통일화 작업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12월 26일 서울 도선동 밀각심인당에서 종단 의식곡에 창작성을 가미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진각종의 법회의식인 교리참회, 강도발원, 오대서원가, 경전봉독, 육자진언염송, 회향발원가, 회향참회에 음악이 가미돼 진행됐다.

이어 1990년대 이후 생겨난 가곡풍, 찬불대중가요 스타일의 무상, 향심,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불자들이 선호하는 찬불가와 국악인 박애리, 바리톤 홍일씨의 폐사지 보존 관련 창작 음악을 선보였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자성학교 교사연수

진각종 제 30기 자성학교 교사연수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총인원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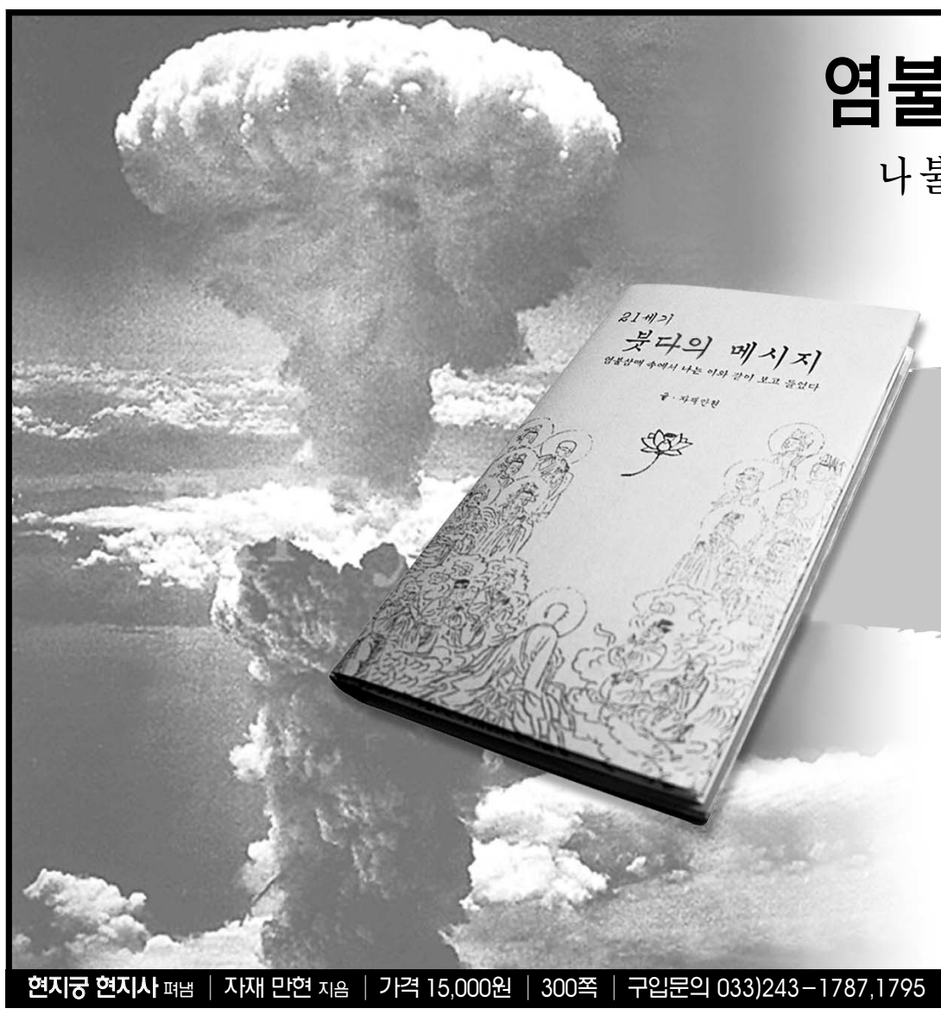
진각종 포교부(부장 회성) 주관으로 열린 자성학교 교사연수는 요가, 점토공예, 찬불동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교재 구상 등의 다채로운 방안이 모색돼 자성학교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원우 기자

종단 법인화 등 의결 조동종 중앙종회

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12월 27일 서울 총무원 용천사에서 제37차 중앙종회를 열고 2005년 예산 집행결과를 심사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종회의장 해륜, 감찰원장 대은, 포교원장 통원, 국제선원장 법공 스님 등 종회의원 21명이 참석한 중앙종회에서 조동종은 올해 사업으로 종단 사단법인화, 5월 중국 조동종 발상지 남창 보리선사 성지순례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조동종은 보리선사에 조동종 창종을 기념하는 비석을 종도들의 뜻을 모아 건립키로 했다. 강유신 기자

고침 본지 제556호 7면 '지역불교 현장을 가다-북제주' 제하의 기사에서 '태고종세가 조계종 보다 우위에 있다'는 표현은 사찰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총판 운주사 11月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예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12개월간 자제만현스님의 매월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시라!

현지궁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대순진리회 "사찰서 시주 나왔어요 문 열어 주세요"

불교 사칭 금전 요구

대순진리회가 불교를 사칭하며 접근, 일반인과 불자를 현혹해 거액의 시주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 종교는 가가호호 방문까지 나서며 조계종 사찰을 빙자하는 등 불교를 왜곡하고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 놓기는 커녕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어사 신도인 정모씨(54 · 부산 금정구)는 최근 '범어사에서 시주 나온 보살'이라고 주장하는 두 중년여인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을 미심쩍게 여겨 "주지스님의 법명을 대보라"고 질문한 정씨는 이들이 대순진리회 신도임을 알게 됐다.

이처럼 대순진리회가 불교를 사칭하며 포덕(불교의 포교개념)에 나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순진리회 신도들은 2인1조로 팀을 조직해 길거리나 상가, 가정 등을 방문해 "선방에서 나왔다" "불교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사찰이 있는데 함께 가자"며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접근한다.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한 뒤에는 "조상 중에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등의 불길한 이야기를 꺼내 돈을 내고 제사를 올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인들이 불교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 '불교'로 접근해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양모씨(28)는 "절을 짓기 위해 시주금을 받고 있다"며 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30만원을 건네줬다가 뒤늦게 이것이 대순진리회의 일반적인 수법임을 알고 분개했다. 양씨는 "대순진리회도 대순진리회지만 이런 일을 대책 없이 내버려두는 불교계에 더욱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안티대순진리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순진리회피해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와 같이 '불교'나 '사찰'을 사칭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 측은 피해자의 70%가 주부고 나머지 30%가 불교에 호감을 가진 학생계층이라고 밝혔다.

"사주 봐준다" 현혹…피해사례 수백건
교계 미온대처, 범불교적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측은 "각 방면(지부)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중앙에서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포덕이 재가불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탓에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사례 수집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또 경제적 손실이나 가출로 인한 가정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대순진리회측에 신분이 노출되어 섣불리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피해사례를 찾아내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종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종교 항의 성명서 발표를 통한 대순진리회 측의 포덕활동 시정요구 △대표성을 지닌 기구에서 범불교적 '불교사칭피해사례' 접수창구 마련 △신도교육 강화를 통한 의식 함양 △사회적 홍보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하는 일이다. 각 종단이 신도교육시, 불교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주의하도록 교육해 피해를 막는 한편,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불교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는 "불교계가 일반인 대상의 포교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신흥종교가 그 틈을 파고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점, 사주, 제사 등과 연관 지어 금품을 요구하는 단체'로 비칠 수 있다. 불교계는 외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범불교적인 대책과 사회적 활동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성도절 철야용맹정진 열기

전국사찰서 음악회등 축하행사 함께 열려

1월 7일(음력 12월 8일)은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오신날(성도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치열한 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날,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한 용맹정진으로 각오를 다진다. 올해에도 전국의 사찰들은 용맹정진,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8일간을 수행정진 주간으로 정한 조계사는 '지혜의 등 밝히기' '철야정진'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매일 108배,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 나눔 실천 등을 수행지침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정진 주간 동안 신도들로 하여금 실천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계사는 12월 16일부터 1월 14일까지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고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지혜의 등을 내건다. (02)732-2183

제천사암연합회와 수원포교당은 음악회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제천사암연합회는 1월 7일 오후 2시 제천문화회관에서 '불자와 함께하는 성도재일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수 장미화씨, 보현 스님 등이 출연해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043)652-0897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정진에 들어간 **수원포교당**은 1월 6일 오후 6시 촛불의식을 시작으로 봉축음악회를 연다. 전야제 후에는 7일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으로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되새긴다. (031)255-2692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주최로 대규모 연합법회가 열린다. 1월 7일 오후 2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법회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동화사 주지 지성, 대성사 주지 정산 스님 등 지역 스님과 사찰 신도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사 등불패의 사물놀이, 서봉사 난타공연 등 식전행사와 부처님오신날 기념법요로 진행된다. (053)629-9500

대전지역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청림회**는 충남대교수불자회와 함께 1월 7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성도재일 기념 특별대법회'를 봉행한다. 니르바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과 살사댄싱팀의 공연이 마련된 이날 법회에서는 문경 김룡사 회주 자광 스님이 법사로 나서 대전지역 불심을 다진다. (042)541-1505

12월 31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1월 7일까지 정진주간으로 정한 서울 **봉은사**는 매일 기도정진, 1월 6일 철야정진, 7일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 초청법회 등을 통해 성불의 의지를 다진다. (02)3218-4801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은 1월 6일 오후 8시부터 7일 새벽 6시까지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정진은 아나빠나사티 수행 및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예경 등으로 진행된다. (02)386-4755

순천 **송광사**는 1월 6~8일 '철야용맹정진 산사체험' 행사를 연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061)755-0107

이 외에도 김천 직지사(054-436-6174), 서울 불광사(02-413-6060)와 도선사(02-933-3161), 능인선원(02-577-5800), 안양 한마음선원(031-470-3100)이 1월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등 전국 사암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맞이 용맹정진이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4대종교 성직자들 사랑의 하모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자는 뜻을 모아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음악회에서는 신부, 목사, 교무, 스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환경뉴스 1위 빈그릇운동 · 지율 스님

1년 여 만에 120만명이 동참한 '빈그릇운동'과 올해 초 천성산 살리기 100일 단식을 진행한 지율 스님이 2005년 불교계 환경뉴스 1위에 선정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지난해 12월 28일 불교환경단체와 불교계언론 NGO 담당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2005 불교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계룡산 살리기 대전충남 범불교연대' 창립과 '북한산 관련 봉선사 · 회룡사의 보상금 수령'을 각각 3위와 4위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강행'과 '불국사 불법 골프연습장 조성'을 공동 5위로 올렸다. 불교환경연대는 또 '은해사를 중심으로 한 수목장 운동 확산'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 논란' 등도 주요 이슈로 발표했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경불련 끝내 해체되나

불교시민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은 끝내 해체 되는가?

경불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재방)가 지난 12월 26일 "비상대책위는 논의 끝에 13인의 대책위원 중 12명의 찬성으로 해체에 동의하였다"며 공식해체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는 "경불련은 그동안 조직재편과 활동방향에 대한 내부 활동가들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해왔다"며 "2003년 내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실질적인 활동을 벌여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해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불련 임효정 시민연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는 아무런 대표성이 없는 정체불명의 기구"라며 "경불련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해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교계 안팎의 활동가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조직 내부문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이다.

한 활동가는 "불교시민운동의 장을 연 경불련이 좌초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양측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15년 동안 노숙인 재활, 해외구호,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온 경불련. 많은 사람들이 경불련호(號)가 순항하기를 바라고 있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국제청소년불교문화캠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는 오는 1월 14~15일 이틀간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6 국제청소년불교문화캠프'를 서울 길상사에서 개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외국인 청소년들과 어울려 한지공예, 꽃삼병떡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저녁예불, 108배와 참선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10~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번 캠프는 1월 8일까지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02)722-2206 이은비 기자

고구려문화유적 탐방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대학생 지도자들이 고구려유적을 탐방했다.

(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회성)는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젊음의 기상으로 심인진리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변과 백두산 일대에서 2005 동계 VIYA 대학생캠프를 개최했다.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오녀산성과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수왕릉, 고구려의 기원과 건국신화가 기술돼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답사했다. 김원우 기자

광덕산 난개발 안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광덕사와 안양암이 위치한 광덕산 중턱에 가옥을 신축하겠다며 두 사찰이 등산로에 설치한 화단과 계단, 석축 등을 철거해 달라는 건물주의 차량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찰의 보호와 보존, 그리고 광덕산 등산객들의 고통사고 예방과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차량통행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사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 종 정 : 법전 월하 ● 부 종 정 : 성민, 혜일
● 원로원장 : 법종,
● 원 로 원 : 월하, 성민, 혜일, 만공, 해공, 혜정, 백공, 천광, 해산, 정오, 일봉, 도일
● 율 원 장 : 성민 ● 유 나 : 봉선

● 총무원 원 장 : 혜인
교육원장 : 일봉 포교원장 : 혜정
종회의장 : 혜명
총무부장 : 동산 국장 : 고산 사회부장 : 정덕 국장 : 용산
감찰부장 : 상산 국장 : 무원 재무부장 : 법정 국장 : 대도
규정부장 : 월성 국장 : 지호 교무부장 : 월곡 국장 : 한산
호법부장 : 지오 국장 : 도현,다정 문화부장 : 원산 국장 : 법장
포교부장 : 정산 국장 : 효천
비구니부장 : 혜명 국장 : 법련,덕산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 남부교구 종무원장 : 상산 강원교구 종무원장 : 동각
서울 서부교구 종무원장 : 법선 충남교구 종무원장 : 무광
서울 동부교구 종무원장 : 대도 충북교구 종무원장 : 일봉
인 천 교 구 종 무 원 장 : 혜원 경남교구 종무원장 : 혜명
부산서부교구 종무원장 : 정오 경북교구 종무원장 : 혜관
부산동부교구 종무원장 : 봉선 전남교구 종무원장 : 대성
전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정산 대구교구 종무원장 : 도월
제 주 교 구 종 무 원 장 : 덕산, 남산 울산동부교구 종무원장 : 운산
경기 동부종무원장 : 도연 경기 남부종무원장 : 법정
울산남부교구 종무원장 : 수덕 중국남경 종무원장 : 해산
미국뉴욕 종무원장 : 성산 일본동경 종무원장 : 정대

●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서진수

● 삼화불교대학
학 장 : 법종
대학교수 : 법종, 백공, 혜정, 정산, 월곡, 봉선,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 삼화불교대학원
원 장 : 해산
대학원교수 : 법종, 일봉, 해산, 정수
조 교 : 정금옥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항평,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 신병용
이 사 : 손정일
학생주임 : 이화목, 심원일, 이은재
조 교 : 손정, 주소리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발 행 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정산, 법련, 혜은, 각원, 덕산, 중비, 고산, 정금옥
취재기자 : 정재훈

■ 총무원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2026, 2027, 2028 , 3445-7375, 7376 / FAX 02) 511-2028
인터넷주소 : 삼화불교대학 www. samhwade.com 남경중의약대학 www. 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청주에 茶·禪·食 박물관 들어선다

화장사, 사찰 땅 2천여평 충청북도에 기증
체험·단기출가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



지난 12월 28일 열린 화장사 다·선·식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은 세미나 내용을 꼼꼼히 챙기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의 전통문화이자 최고의 웰빙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선(禪)과 차(茶), 그리고 사찰음식.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는 최근 다(茶)·선(禪)·식(食)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불교계의 다·선·식 전문가와 충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건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다·선·식 박물관 건립 추진은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다·선·식 문화를 국민문화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장사가 사찰 땅 2천 여평의 부지를 충북도에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화장사가 계획하고 있는 다·선·식 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건평 2900평 규모로, 투입되는 예산만도 150억원에 달한다. 이곳에는 차와 사찰음식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150평 규모의 공간과 800석 규모의 극장식 회의실 등이 갖춰진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차와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사찰음식의 재료가 되는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사찰 내 법당 및 야외 시설 등을 이용한 시민선방을 비롯해 걷기 명상 등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청소년 수련회와 일반인 단기출가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다·선·식 박물관이 충북의 열악한 관광 자원을 개선하고 도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립박물관 형태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박경국 문화관광국장은 "화장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좋은 제안인 것만은 분명하며, 다·선·식 박물관이 건립되면 도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선·식 박물관 착공은 화장사가 건립과 운영주체가 되는 사설 박물관 또는 도가 주체가 되는 공립박물관 형태 중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될 경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사 주지 무진 스님은 "다·선·식 박물관 건립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불교적인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침박달나무꽃으로 유명한 화장사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주시내에서 가까운데다,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회관, 청주동물원, 상당산성으로 이어지는 청주 최고의 관광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회 참석 '쿠폰'으로 학용품 구입"

영남불교대 관음사 경산도량 어린이바자회 개최



지난 12월 24일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에서는 이색 바자회가 열렸다(사진).

법당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바자회장에는 연필 샤프 공책 크레파스 등 학용품들이 가득했다.

이날 바자회에서 통용된 돈은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이 발행한 500원, 1000원짜리 종이지폐. 어린이들이 법회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씩 받아 일년동안 모은 것이라 더욱 값지다.

밤잠을 설치며 바자회를 기다렸다는 정지영(대구 고산초 5)양은 동생 윤영(4)이에게 과자를 사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종이지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우수연(대구 욱수초등 4학년)양은 경산도량에서 구입한 물건이 제일 많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어린이법회 지도자 선정수 교사는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똑같은 선물을 주기보다 어린이들이 성실히 출석한 댓가로 이벤트를 열어주니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광주 원각사 결식아동에 성금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지난 12월 24일 원각루앞 뜰방에서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웃과 하나되는 연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는 결식아동 돕기 자선모금 활동도 펼쳐졌다. 한편 원각사는 결식아동돕기 바자회와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 100만원을 광주 충장동사무소에 기탁했다. **이준엽 기자**

부산 선양복지관, 실버타운 건립 추진

부지 마련 위해 큰스님 선서화展 열어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이사장 김수현)은 지난 12월 19일~29일 불교문화시설 '장원 불교의 집'에서 실버타운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실버타운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 도자기, 손 조각으로 제작된 함, 다기, 경봉 스님, 화엄 스님, 탄허 스님 등 큰스님들의 선서화 등 5백여점이 전시됐다. 특히 28일, 29일 양일간 부산 수덕사 주지 법민 스님이 가훈, 달마도 등을 직접 그려주어 관심을 더 모았다.

이번 전시회는 '장원 불교의 집' 개원식과 함께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2004년 9월 소외 계층의 독거노인과 결손 아동 지원사업을 해 온 선양복지원은 올해부터 노인종합상담센터로서 한층 더 심화되고 전문화된 복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051)502-211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점 한점에 정성 땀 가득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4~6일 작품전

장애인들의 정성과 땀으로 완성한 사진, 서예 한지공예작품 전시회가 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경주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종광)이 개최하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작품전시회'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경주 장애인복지관 'well-being club' 회원들의 사진작품 35점과 묵향 가득한 서예교실, 오색한지공예교실 회원작품 40여점이 함께 전시된다.

종광 스님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우리 장애인들께 감사하다"며 장애인들의 자아성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2008년까지 원통보전 등
양양 낙산사 복원 본격화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양양 낙산사 복원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낙산사(주지 정념)와 양양군은 지난해 9월 동종 및 보호각 건립사업에 착수, 올해 6월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원통보전 등 소실된 전각들을 오는 2008년까지 완전 복구키로 했다.

낙산사와 양양군은 원통보전 발굴조사가 최종 마무리된 후 고증을 거쳐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무설전 등 9동의 전각과 담장, 조경시설 등 시설물 복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예문 누각 및 축대보수, 사리탑 보수 등 지방문화재 복구사업 등은 현재 설계승인을 받은 상태로 2007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해수관음전, 보타전, 의상전, 팔상전 등 비지정문화재도 낙산사가 자체적으로 복구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부산불교 연합회·신도회
합동신년하례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월 4일 오후 5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1부 문화공연에 이어 2부 신년하례법회 및 축하리셉션으로 이어질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덕 스님들과 각 종단 대표, 사찰 신도회 대표 및 임원, 신행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2006년 부산 불교의 서원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051)867-0501 **천미희 기자**

대구경북 포교전진대회 열려



2006년 대구경북포교사의 원력을 다짐하는 포교전진대회가 지난 12월 26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열렸다(사진).

동화사 주지 지성, 은해사 연수원장 혜해,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과 양성홍 중앙포교사단장을 비롯한 내 외빈과 포교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 2부 국악축하한마당으로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백장선원 사찰순례단 모집

21세기 수행공동체를 표방하는 백장선원이 올해 다양한 문화 불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그 첫 걸음으로 월 1회 1사찰 순례단을 모집한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명찰을 순례하며 사찰풍수와 문화재에 대한 특강과 답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함께 수행정진을 하겠다는 것. 1월 8일 첫 순례지는 지리산 백장암 백장선원과 실상사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90명.(053)744-0103

배지선 기자

34개 복지관에 휠체어 전달



광주 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 스님)와 보성건설은 지난 12월 27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2005 사랑의 휠체어 지원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사업에 선정된 34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에 총 103대의 휠체어가 전달됐다(사진). **이준엽 기자**

청원 혜은사 군부대 위문



충북 청원 혜은사(주지 덕산)는 지난 12월 18일 제1보급창 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사진)하고 인기 연예인을 초청해 위문공연을 가졌다.

500여 장병들은 공연관람과 함께 동료들의 창작 공연 등을 즐기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덕산 스님은 "매년 하는 행사지만 장병들이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위문공연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장병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天一氣功研究會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삼성종합화학(주) 한솔개발(주),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 등 수련지도

수련생의 특전

◆ 3박4일 코스 이수자는 중국심양중의학원 침구, 추나, 안마 특별 자격증 연수교육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비 혜택) (2월초 예정) **선착순 15명**

◆ 3차교육후 국내 4년제 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대체의학요법과정)

◆ 본회수련을 마친분 중에 관심있으신분 연락요망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 (서울본회)
054)637-9810 (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53기 - 1월19일 오후 2시 ~ 22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300페이지 값 10,000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얼굴이 시커멓케 된 분은 사기가 많은 분입니다. 3박4일 수련으로 얼굴빛이 훤하게 변합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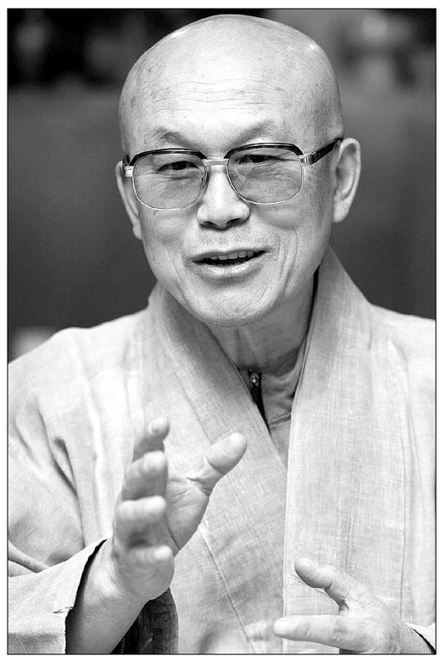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욕망·번뇌 가라앉히고 마음 비워내

대효 스님에게 듣는 단식참선수행

'식욕'과 '인욕'. 원초적인 본능과 정면으로 맞서는 단식(斷食)이 던져주는 화두다. 인간의 본질적인 경계와 맞닥뜨리는 '자기 싸움'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단식은 스스로 불성을 찾는 치열한 수행과 닮아있다. 번뇌와 망상 하나 하나를 걷어내고 씻어내, 끝내 자성을 확인해가는 그 녹록치 않은 길을 수행이나 단식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다. 깨닫기 직전까지 여드레 동안 입에다 음식을 대지 않다 결국 정각을 성취했다.

단식과 수행.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지난 1998년부터 '단식참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제주 원명선원 회주 대효 스님(사진)에게 '왜 굶으면서 수행을 해야 하는지' 들었다. (064)755-3322



▲수행과 단식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행은 나를 찾는 일관된 행진입니다. 이 행진을 막는 장애는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몽매함에 있죠. 원인은 혼침과 산란에 있습니다. 이 혼침과 산란과의 전쟁이 바로 수행정진입니다. 단식은 잠을 덜어주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때문에 수행과 단식은 병행돼야 합니다. 더욱 수행자들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질 때, 몸이 마음을, 마음이 몸을 바로하지 않을 때, 단식은 균형을 갖추게 해줘 수행의 중심을 흔들 틈을 주지 않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욕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그런 식욕을 절제하는 단식참선은 가장 본질적인 경계와 부딪치면서 공부하는 수행법인데요, 단식을 병행한 수행이 왜 중요합니까?

-단식은 자제(自制)하는 행위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수행, 그 자체입니다. 단식을 수행으로 보지 않고 치병 수단으로만 본다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단식을 기법으로만 접근한다면, 매우 어려운 훈련에 불과하겠지요. 식욕은 인간이 존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욕망입니다. 단식수행은 그런 욕망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줄여 마음을 비우게 합니다. 또 심신을 홀가분하고, 청정하게 해 지혜를 증장시킵니다. 정진으로 몰입하는데 더할 나위없는 수행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스님들은 단식을 수행으로 삼아왔어요.

▲간화선 수행에 단식이 도움이 되나요?

-일체 행위가 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살기위해 필요한 재물과 명예, 종족번식을 위한 성적욕구 등을 해결하려고 한 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각성케 하는 것이 화두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의 성취 때문에, 화두참선 수행을 일상에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이러한 일상의 터널을 벗어나게 해주는 가교역할을 합니다. 단식은 욕망을 쉬는 입장에서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본래 나는 무엇인가'라는 의심과 병행될 수 있지요. 초심자에게는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의 보따리를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수행은 쉬지 않고 정진해 결국 삶 자체가 수행이 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식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체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두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역대 선사들은 평상심을 강조합니다.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 평상심입니다. 단식수행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상심과 단식은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단식은 평상심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성에 젖어

> 맑고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 단식참선 시작해야 효과적
> 신심의 균형 이뤄주는 단식은
> 수행의 중심 잡는 기둥과 같아

사는 중생들에게 만족 속에서 만족을 알게 하고, 부처 안에서 있으면서 부처를 찾지 않게 합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얘기는 경계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사하는 자신과 음식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동하는데,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단식수행 중에 겪는 '배고픔'이 화두가 될 수 있습니까?

-단식은 흐트러지고 혼탁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죠. 화두를 또렷하게, 의심을 지어가는 마음을 지속되게 합니다. 초심자들이 수행의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단식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마음의 찌꺼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속으면서 반복해서 하는 행위들이 바로 마음의 찌꺼기임을 알게 되지요. 화두는 무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간 살면서 쌓아온 온갖 시름과 번뇌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해 빈틈을 주지 않으면, 단식 중에 겪는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가불자들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수행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재가불자들의 식생활 개선은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스님이 강조하는 '연강단식(輭强斷食)'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연강단식은 제 단식수행 경험에서 고안한 단식법입니다. 연강단식법은 단식의 강도를 부드럽게 또는 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온수 음용, 죽염 복용, 걷기 운동 등이 핵심입니다. 이런 연강단식은 특히 몸의 부담을 줄입니다. 단식에 들어가는 순간,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져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가 곧바로 음식을 끊고, 단식이 끝난 다음 정상적인 식사를 하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단식법입니다. 기존의 일반단식과 같이 예비단식이나 보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합니다.

▲단식참선수행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꾸준한 노력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식수행 전,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에 들어가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항상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정제가 잘된 죽염을 단식기간 먹을 량을 확보,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며 △장 청소를 위해서 물 2리터에 죽염 2숟가락을 넣어 한꺼번에 마셔 설사를 하고 △단식 중에는 흥분, 성냄, 성생활을 금하며 △온수와 죽염 외에는 다른 음식은 취하지 않고 △하루에 1시간이상 땀이 나기 직전까지 걷기와 줄넘기 요가 등을 하면 됩니다.

만약 단식 중에 문제에 부딪히면, 단식이 몸에 배도록 점검을 반복합니다. 점검은 단식수행자의 신체적·체력적 상황에 따른 반응들을 면밀히 살펴, 연강단식법의 핵심은 온수 음용, 죽염 복용, 걷기 운동 등의 강약을 조절해줍니다. 가령 공복 상태에서 오는 부담감을 점검해 온수 마시기를 늘릴지, 걷기 운동을 줄일지 등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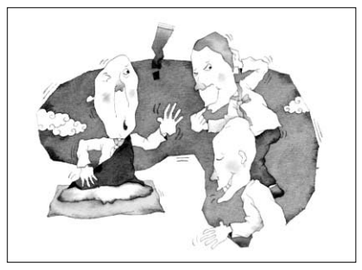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9> 형과 아우가 뒤바뀌니

언젠가 풍수지리에 관한 책을 읽다가 한 반도는 장남보다도 둘째가 더 능력을 발휘하는 땅이라는 구절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 풍수문제가 아니라 대가족이라는 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장남은 태어나면서 이미 기득권자가 된다. 분배순위에서 늘 우선이다. 그러다보니 현실에 안주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둘째는 항상 형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다보니 진취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때 〈이 땅에서 장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이라는 책이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장남만이 가지는, 차남들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읽어내고는 만인이 공감하였다. 결국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 말은 장남만이 누릴 수 있는 부모의 열정과 관심으로부터 비롯되는, 부모 나름대로의 심



속가 형 도오 보다 먼저 출가한 운암 선사
형 데려가 스승에게 보였으나 제자로 안받아

혈을 기울인 영재교육과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절집에서도 형과 아우가 동시에 출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도 친한 경우가 아니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뒤에 풍문으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쩐지 누구랑 닮았더라"고 하면서 말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의 바로 위 사형과 한참 밑의 사제가 형제간이다. 이런 경우는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동생이 먼저 출가하고 형이 나중에 입문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법랍순으로 앉는 자리가 결정되니 속가의 형과 아우가 절집에서는 뒤바뀌게 된다. 그래서 한 스승 밑으로 형제가 동시에 출가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리고 형은 지명도가 있는데 동생이 묻혀있거나 동생의 유명세에 형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당나라때 도오 화상(도오가 여럿인데 누군지 확인 불가)과 운암담성(782~841) 선사의 집안도 형제출가자를 배출했다. 운암은 동산양개(807~869)의 스승이다.

도오 화상은 46세에 출가했다. 그야말로 완전한 늦깎이인 셈이다. 운암 선사는 도오의 친동생으로 아주 어려서 출가했고 형이 출가할 무렵에는 백장선사의 시자로 있었다. 그 무렵 형인 도오는 보탐관(報探官)이란 벼슬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출장을 나와 진종일 걷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백장산의 농막에 이르렀다. 배가 너무 고파 염치불구하고 와서 밥을 달라고 했다. 이 때 마침 운암이 농막에 볼일이 있어 내려갔더니 장주(莊主: 농장 책임자)는 운암에게 손님 접대를 부탁했다. 그런데 대면한 나그네가 너무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래서 긴가민가해 수인사를 마치고 물었다.

"장군은 어디 사람이오?"

"강서성 종릉(鍾陵) 건창(建昌) 출신이외다."

"성은 뭔가요?"

"왕씨요."

운암은 이 말 끝에 바로 친형임을 알고서는 손을 덥석 잡고서 물었다.

"어머니는 잘 계신지요?"

"동생(운암) 생각에 너무 울다가 한 쪽 눈을 잃으시더니, 이제 아주 별세하셨소."

가족사의 아픔과 그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리고 형을 출가토록 꼬드겼다. 마침내 운암은 그날로 백장선사에게 형을 데리고 가서 뵙게 하였다.

"저의 형인데 출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제자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사형인 약산유엄(745~823) 선사에게 보내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형제를 동시에 한 문중에서 거느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운암은 형을 데리고 약산 사숙에게로 가게 된다. (계속)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1월 13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한국 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 '그 무엇'

'一物'은 실물 아닌 깨달음의 경지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알음알이'

<선가귀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머리부터 심상치가 않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단락에서 불교를 어렵게 여겨 겁을 먹고 공부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내용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한 중요한 내용이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기억이라도 해두어야 한다. '그 무엇'이라고 번역한 일물(一物)은 선가에서 참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不曾滅 名不得狀不得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느니라.

원문에 나오는 '일물(一物)'은 직역하면 보통 '한 물건'이라고 번역하기에 어떤 실물을 연상하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엇'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표현은 <금강경오가해> 서문에 나오는 '일물'과는 그 뜻이 같지만 육조 혜능 스님 게송에서 '한 물건'이라고 번역되는 '일물'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육조 스님의 게송을 살펴보자.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깨달음은 잡히는 존재 아니고
밝은 마음 이름뿐 실물 아니네
본래가 한 물건도 있지 않거늘
일어날 번뇌가 어디 있을까.

<선가귀감>에서 말하는 '그 무엇'은 '본디 밝고 밝아서 신령스러운 것'이다. 이는 육조 스님의 게송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뜻인 '보리(菩提)'와 '밝은 마음'의 뜻인 '명경(明鏡)'에 해당된다. '그 무엇'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하여 육조 스님이 억지로 이것을 깨달음이나 밝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그 무엇'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잡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 무엇'에 해당되는 밝은 마음은 이름뿐이지 어떤 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구절에서 어떤 실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물(一物)로서 '한 물건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선가귀감>의 '일물'은 부처님의 영역인 '그 무엇'을 말하고 육조 스님의 '일물'은 중생의 영역에 있는 '어떤 실물'을 말하니, 낱말은 같지만 그 뜻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부처님의 영역에서 중생인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중생의 번뇌가 어떻게 있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육조 스님은 "일어날 번뇌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며 게송을 매듭짓는 것이다. '그 무엇'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서산 스님은 허공에 둥근 원(圓)을 그리고 말씀하셨다.

古佛未生前 凝然一圓相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이 세상에 옛 부처님 태어나기 전
빈 허공에 서린 기운 한 가지 모습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니
가섭인들 이 도리를 어찌 전하랴.

이 뜻은 '그 무엇'이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기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육조 스님이 대중들에게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그대들이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신회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源)이요 신회의 불성(佛性)입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답했던 신회는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이는 중생의 알음알이로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숭산에서 온 회양에게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었다. 회양이 쩔쩔매다 8년이 지나고서야 "설사 '그 무엇'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는 근본을 철저히 깨닫고 한 답이었기에 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 받았다.

이 경계는 부처님의 세상이므로 참으로 부처님만 알 수 있고, 순수한 깨달음이므로 오직 깨달은 조사 스님만이 알 수 있다. 중생의 알음알이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자리를 어떤 경계로서 안다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중생의 알음알이에 떨어지게 된다. 서산 스님은 이 경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三教聖人 從此句出 誰是擧者 惜取眉毛

부처님이나 노자 공자도 '그 무엇'에서 나왔으니
누가 감히 이 자리를 거론할 수 있겠느냐
함부로 입을 놀리다간 눈썹이 빠지리라.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목탁(木鐸) 잡는 법

목탁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구(法具)입니다. 고기 모양의 목어(木魚)가 둥글게 변형된 목탁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고 살아가는 물고기를 보고, 수행자로 하여금 자지 말고 수행정진하라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절집에서는 독경이나 염불할 때 운율을 맞춰 목탁을 치고 있지요. 미혹하고 침체된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의미가 바로 목탁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탁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목탁을 바로 세워 손잡이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넣고 살며시 주먹을 쥐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목탁 위의 갈라진 부분을 세워 가슴 앞에 주먹 1~2개 정도 띄어서 똑바로 오도록 하지요. 이어서 목탁채는 채의 둥근 부분을 오른손가락으로 감싸 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덮습니다.

목탁치는 것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일자 목탁은 죽비처럼 법회나 참선의 처음과 시작을 알릴 때 치곤 합니다. 또 굴림목탁은 정근 또는 염불을 할 때에, 내림 목탁은 합장 인사할 때나 절할 때 치는 방법입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3강 혜능의 돈교(1): 자성여래(自性如來)의 자선호념(自善護念)

마음은 우선 죽여야 할 물건이니, 왜냐. 그것은 한시도 가만있지 않고, 나무 사이를 폴짝이는 원숭이처럼 바깥 경계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이다. 혜능은 이렇게 말한다.

1. 항복

"수보리는 보았다. 우리네 중생들이 예외없이 동동 허덕대는 것을… 뿌옇게 떠다니는 마음은 갑자기 태풍처럼 일어났다 다시 염념상속(念念相續), 또 다른 마음으로 이어져 쉴 새가 없는 것을… 대체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겠느냐?" 須菩提見一切衆生躁擾不停, 猶如隙塵搖動之心, 起如飄風, 念念相續, 無有間歇. 問若欲修行, 如何降伏其心.

어렸을 때, 헛간 같은데서, 햇빛이 비치면, 판자들 틈으로 뿌연 먼지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동동거리며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도무지 진득한 안정감이 없는 것이다. 혜능은 선남자(善男子)란 바로 그것, 즉 평탄심(平坦心)과 정정심(正定心)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썼다.

그렇다고 지레, "그럼,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 있자"라고 해서는 만만 불가하다.

사람이 어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살겠는가. 요동을 치는지, 안정감이 있는지는 겉으로 분주한가 한가한가와는 상관이 없다. 경허였던가, 스님 하나가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자, 아차 싶어 잽싸게 처마 밑으로 피했겠다. 봉창을 열고 농부 하나가 핀잔을 주었다. "거 도를 닦으신 스님네가 채신머리없이 비 정도에 이리저리 들고 뛴단 말이오." 옷의 비를 털어내며 하늘을 보던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비를 피하는 것과 도(道)가 무신 상관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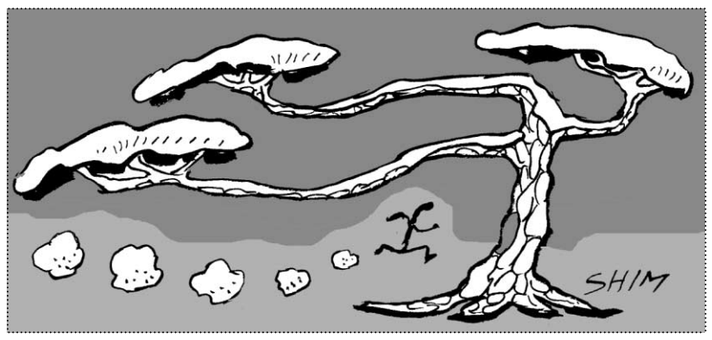
바쁜지 한가한지는 마음에 달려 있다. 천하의 대사를 처결하면서도 한가한 사람이 있고, 나처럼 컴퓨터 하나가 말썽이면, 아차 싶어서 한밤중에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구, 이거 큰일이네. 파일 다 날아갔네."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여기서 저기로 휩쓸려 다닌다.

세상은 평온한데 내 마음만 공연히 바쁘고 조급하다. 안에 힘이 쏠리면 바깥은 점점 평온해진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당시에 동동거렸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사소한 일이었던 것들이 적어도 태반은 넘지 않은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 얻고 난 장난감들은 하루 이틀이면 방 한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고, 그토록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흘러가면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다. 그 상념을 미리 당겨쓰면 현실을 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언제 한번 마음을 쉬어 보나. 그게 어렵다. 한순간에 십만 팔천 번의 상념이 오간다. 혜능의 말마따나 마음은 염념상속(念念相續), 다시 마음으로 이어져 쉴 새(間歇) 없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 '뿌연 먼지'들을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우선 마당에 찬물부터 뿌리고, 다음 이 먼지들이 어디서 오는지, 왜 이렇게 푸석거리는 구덩이를 밟은 智)로, 제 마음과 몸을 기억하여(念), 망녕되이 증애(憎愛)를 일으키지 않도록, 또 바깥의 육진(六塵)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생사의 고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 마음 가운데 생각 생각(念念)이 항상 바르게 있어 사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자성(自性)이 여래(如來)이고, 자선(自善)이 호념(護念)한다!" 言善護念者, 令諸學人, 以般若智護念自身心, 不令妄起憎愛, 染外六塵, 墮生死苦海. 於自心中念念常正, 不令邪起. 自性如來, 自善護念.

역시 사랑과 미움이 문제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모든 문제의 진원은 사실은 마음속에 있다. 같은 잘못이라도 마음에 맞거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은 눈감아주고, 같은 공적이라도 뜻을 달리 하거나, 당파나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가 공적이고 객관적임을 웅변하고 설득하고 강요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문제가 바깥에 있기보다, 안에 있다는 불교의 판단이 옳지 않은가.

살인도(殺人刀) 활인검(活人劍)



자성여래(自性如來)는 "내 마음의 여래"를 가리킨다. 이는 "내 마음이 곧 여래이다"라는 말로서, "네가 부처다"라거나, "내 마음이 부처이다"라는 돈교의 취지를 그대로 표명하고 있다.

다만, 그 여래를 숨 막히게 하는 잡동사니와 장애물을 걷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 방법은 증애(憎愛)를 일으키지 않고, 육진(六塵)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내부의 사랑과 미움의 투영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적 관심이 어지럽게 분출하는 것을 조정하고, 편견의 고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꿈꾸는 세상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그 점에서 불교는 옳다. 애증(愛憎)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때 통연명백(洞然明白), 사태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불교는 바로 이 사사로움이 통하지 않는 은산철벽의 <객관성>을 향한 노력이다! 그것을 불교는 법(法)이라고 불렀다.

법(法)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나는 인도 불교의 다르마(Dharma)를 왜 법(法)으로 번역했는지 늘 궁금했다. 그 기미를 조금 알 듯하다. 법은 투명한 세계를 가리킨다. 그래서 나는 법을 '객관적 사태'로 번역하기를 즐겨한다. 이에 대비되는 상(相)은 '주관적 판단'이다. 평화와 안정, 질서, 행복 등 인류가 꿈꾸는 가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주관성의 편견과 협애함을 자각해야 한다. 이곳에 착목(着目)했다면 반야바라밀, 일은 거지반 이루어졌다.

수행이란 마음에 그런 불건전한 상념들이 더 이상 반복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단하는 일이다. 혜능은 선부촉(善付囑)이란 바로 그 지속적 정화의 노력, 즉 청정(淸淨)한 생각이 '이어져 나가도록(付囑)' 하는 일이라고 해석한다.

"앞 생각도 청정하고, 뒷 생각도 청정하도록 이어져 끊이지 않도록 하면, 나중에는 결국 해탈할 것이다. 여래는 이 뜻을 중생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간곡히 일러주었다. 그렇게 살도록… 이를 선부촉이라 한다."

言善付囑者, 前念淸淨, 付囑後念, 淸淨無有間斷, 究竟解脫. 如來委曲誨示衆生及在會之衆, 當常行此, 故云善付囑也.

마음은 그렇게 죽이고, 다시 살려야 할 물건이다. "살인도(殺人刀) 활인검(活人劍)!" 그런데주의할 것은 이 칼자루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점이다. 그것이 혜능선의 독창적 소식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희망이다. 다음 몇 회는 그 혜능선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타국생활의 고단함 싸~악 푸세요

조계사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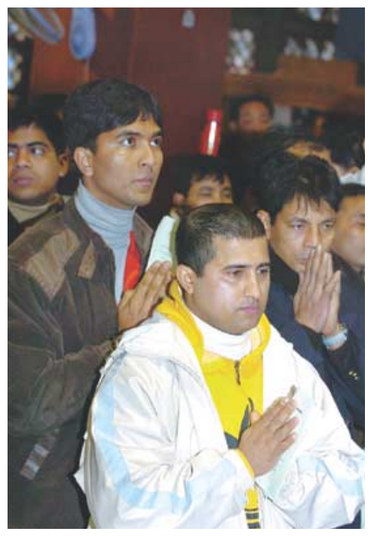
불자 외국인 노동자 250명 법회보고 떡국도 먹고…
'15%나눔' 성금 300만원 화상 입은 밀룬씨에 전달



사진은 조계사 설법전에서 경희의료원불자회 회원들로부터 침치료를 받고있는 모습.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랜 타국생활과 심한 노동으로 소화장애와 근 · 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과 새해를 앞두고 떡국을 맛있게 먹는 외국인들.



참가자 대부분은 불자이면서도 한국에서는 법회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조계사에서 마련한 방한복과 선물을 받아든 외국인 노동자들.



경희의료원불자회 소속 한의사들이 이날 무료진료봉사에 나섰다.

"새해 소원이요?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밀원 30 · 태국)

"부처님께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세프 26 · 네팔)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모두 사고 없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래요."(슈짓 35 · 방글라데시)

흰 눈이 펑펑 쏟아지는 12월 25일 오전 조계사(주지 원담) 대웅전 앞마당에 진한 피부색의 낯선 외국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조계사가 주최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안산, 의정부, 평택 등지에서 찾아온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출신 불자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조계사 사부대중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받아든 이들의 표정은 포근한 날씨만큼이나 한없이 밝고 행복해 보였다.

이날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 노동자 250여명은 한국의 전통사찰이 자신들을 위해 법회를 연다는 사실에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로 돕고 도우는 연기의 가르침

행사는 조계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법회로 시작됐다.

주지 원담 스님은 15년전 자신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고단한 타국생활을 위로했다.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착하고 친절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게 도움을 줬던 이들 가운데는 혹시 여러분들의 형제나 친척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원담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오래전 제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잠시 조계사 신도들의 도움을 받지만, 도와주는 이와 도움 받는 이는 언제라도 그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연기법을 믿는 불자의 자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원담 스님은 진심어린 격려의 말로 이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졌다.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비쳤다.

법회 도중 네팔 출신의 젊은 노동자 슈레쉬 부부의 3개월 된 아들 린천워무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뒤에서 법회를 지켜보던 노보살이 급히 아이를 받아 안았다. 노보살은 마치 친할머니 같은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랬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다.

법회가 끝날 무렵 아이를 엄마에게 되돌려 보낸 보살은 "맛난 것 사먹어"하며 꼬깃꼬깃 접은 만 원권 지폐 몇 장을 쥐어 주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노보살님의 따뜻한 정은 외국인 노동자 동료들과 조계사 신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절에서 복 기원 모습 다르지 않아"

조계사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방한복(오리털 점퍼) 250여벌을 지급하고, 타국에서 새해를 맞는 이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국을 대접했다. 이들 대부분은 떡국을 먹어야 한살을 더 먹는다는 한국의 풍습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떡국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라며 즐거워했다.

휘발류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고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밀룬씨의 딱한 사연도 전해졌다.

이날 밀룬씨의 동료인 방글라데시인 40여명은 조계사에서 제공한 300만원과 전세 버스 편으로 밀룬씨가 입원한 구로성심병원을 찾아 위문 하기도 했다.

밀룬씨의 동료 슈짓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몸을 다치면 의지할 곳이 없어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마음을 내준 조계사 불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선물로 받은 오리털점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며 즐거워 했다.

옆에 있던 아번씨도 "한국에 온지 5년이나 됐지만 법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바깥출입은 거의 못하는 동료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국 불교계가 외국인 노동자도 자국에서와 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신행활동이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의 불교인구는 불과 0.7%. 대부분 '지타겅'지역 출신인 이들은 한국에만 390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날 네팔 노동자들은 가장 많은 70여명이 참석했다. "네팔 불자들도 연말이면 절을 찾아 복을 비는 것이 한국 불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랍게라마씨는 "그동안 주말이면 교회를 찾아가는 다른 동료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기만 했다"면서 이날 행사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방한복 지급 · 무료진료도

이날 행사에는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운)'와 '자비의 집' 봉사단도 참여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경희의료원불자회는 소속 한의사 2명과 간호사, 약사 등 9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파견, 평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의정부 인근의 공단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아번씨는 "불안한 신분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통 2~3가지 질병을 달고 살면서도 단속이 무서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다"며 "오늘은 조계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2005년 '15% 나눔운동'으로 관내 소년소녀가장 가장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나눔의 보시금'을 적립해왔다. 이날 자원봉사를 한 조계사 신도 보련화 보살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새해를 맞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국적과 피부색을 떠나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흐뭇해했다.

조계사는 2006년 새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4~5월 경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와 정기법회, 신행상담을 펼칠 계획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계사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날 또 다른 '희망'을 보았다. 비록 고된 타국에서의 삶이지만 한국의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 보상사 부처님 치아사리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매주 수 · 금요일 출발
여행경비 : ₩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장사, 장가계 5日 ₩ 549,000 (비자, TAX 별도)

여행조건
1. 국제선박료, 현지 차량, 입장료, 식사비, 중국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서 팁 등 제 비용 포함(개인 경비만 제외)
2.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
3. 출발은 10명이상 가능
4. 10명이상 단체는 타 페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순 례 일 정
제1일	인 천 석 도	화동페리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 인천항 출발, 선내 휴식
제2일	청 주 치 박	전용버스	08시 석도항 도착 / 입국 수속 후 청주로 이동 불교 문화 유산이 잘 보관된 "청주 박물관" 관람 "타산석굴" 참배후 치박으로 이동 호텔 휴식
제3일	치 박 제 남 태 산	전용버스	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영암사"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창건하신 "보조사" 순례 케블카 이용 태산 등정 후 호텔 휴식
제4일	태 산 제 남 유 방	전용버스	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齒를 모신 "보광사"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람 호텔 휴식
제5일	유 방 석 도	전용버스 화동페리	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적산법화원"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18시 출항,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
제6일	인 천		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불교로 찾는 생태계 위기와 대안



불교와 생태학
세계종교연구센터 엮음
불교문화연구원 옮김
동국대학교 출판부
3만원

동국대 출판부, 불교생태학 총서 10권중 두번째
'남방불교와 생태학' '환경친화적 운동' 등 눈길

올 겨울 호남지방의 기록적인 폭설과 지난해 미국과 파키스탄을 잇달아 강타한 허리케인과 강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최근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생태학적 문제들을 풀어보는 '불교생태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 · 동국대 대학원장)이 개교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생태학총서' 10권을 발행한다.

지난 2004년, '불교생태학총서' 시리즈 첫 번째 책인 김종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연구교수)의 <불교생태철학>을 통해 불교생태철학의 학문적 기반과 총론을 소개했던 불교문화연구원은 이번에 두 번째 책 <불교와 생태학>을 출간했다.

이 책은 미국 하버드대 신학대학 부설 세계종교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에서 간행한 '세계종교와 생태학 총서(Religions of the World and Ecology Series)' 중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세계종교와 생태학 총서>는 1996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세계종교연구센터가 '종교와 생태학'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엮은 것으로,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불교와 생태학'이었다.

서윤길 원장은 "<불교와 생태학>은 현재까지 출간된 불교생태학의 연구 성과 중 가장 방대하고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불교생태학총서' 발간을 계기로 국내에서 아직 미개척 분야인 불교생태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에는 '불교와 생태학' 포럼에서 '남방불교와 생태학' '대승불교와 생태학' '불교와 동물들' '불교생태학적 세계관의 응용' '불교와 생태학에서의 이론적 · 방법론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된 1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특히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미국 웨스트대 총장)의 '불교와 생태학-집단적 문화 인식'은 불교생태학 연구의 필연성을 짚어보고 있다.

1부 '남방불교와 생태학'은 현대 태국의 불교생태학 연구 성과와 녹색사회 추진, 사원 공동체의 잠재적 공헌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다. 2부 '대승불교와 생태학'은 화엄적 관점에서 자연을 조망한 '자연의 보망(寶網)'에 대한 개념을, 3부 '불교와 동물들'에서는 <본생담>에 나타나는 동물 해방을, 4부 '선불교: 문제점들과 전망'에서는 선(禪)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불교: 생태학적 공동체 만들기'에 소개된 북미의 불교생태적 운동과 젠마운틴센터(Zen Mountain Center)의 환경친화적 운동은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책 말미에 담은 '불교와 생태학 문헌목록'에서는 불교생태학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앞으로 <생태미학 · 생태문학> <초기경전 속의 불교생태학>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불교사상의 생태적 이해> <현대문명 비판과 불교생태학> <불교와 심층생태학>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기원정사에서 예불을 올리는 한국 불자를 그린 '염원 · 기원정사에서'. 이호신 作.

살아 꿈틀거리는 인도의 풍광

"불교의 시조(始祖) 붓다의 생애를 흠모하며 순례에 동참했던 일은 내 삶의 축복이었다."

2003년 이호신 작가는 인도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둘러 본 인도를 화첩에 꼼꼼히 옮겼다. 돌아와서는 그 당시의 감회를 글로 썼다.

최근에 펴낸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는 두 차례에 걸쳐 인도 전역을 답사한 지은이가 인도의 풍광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일종의 화첩기행문이다.

수많은 유적들 가운데 지은이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둔 곳은 쿠시나가르의 열반당이었다. 지은이는 열반당에 들어서니 "열반에 들기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현상은 변하니 항상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말을 남긴 부처님의 그윽한 음성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고백한다. 이렇듯 이 책에 소개된 유적지들은 단순히 관광객의 피상적인 구경거리로만 머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는 가장 쏠쏠한 재미는 바로 지은이의 그림에 있다. 인도의 세속과 풍물, 자연경관들이 한갓 화제(畵題)의 대상으로 종이위에 박제되지 아니하고 섬세한 필력으로 살아 꿈틀거린다. 그래서 책을 읽다보면 마치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호신 작가는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 결국 내가 만나고 온 것은 수많은 유적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김주일 기자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
글 · 그림 이호신
종이거울 | 1만5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읽을거리 풍성 … 디자인도 새롭네

불교 문예지 '불교문예' '유심' 겨울호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문단의 현실을 짚어볼 수 있는 창구인 문예지. 오늘날 상당수의 문예지들이 판매부진과 대중성 부족으로 폐간되고 있는 가운데, 계간 불교문예지 <불교문예>와 <유심>이 다채로운 읽을거리와 새로운 편집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가 펴내는 <불교문예>(불교문예출판부, 1만원)는 통권 31호인 2005년 겨울호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표지디자인을 바꾸고, '쟁점과 전망' '기획탐구' 등의 기획물을 강화했다.

이번 호 '쟁점과 전망'에서는 수경 스님의 '수행과 생명평화 운동은 둘이 아니다'를, '기획특집'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현대불교문학상 · 계간 <불교문예>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을 실었다. '한국불교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준섭 교수(강원대 국어교육과)의 '반복, 생선, 차이; 최근 학구문학에 나타난 불교적 상상력의 몇가지'와 장영우 교수(동국대 문예창작과)의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작의 문학사적 의의'가 발표됐다.

또한 최동호 시인의 신작시와 공광규 시인의 해설 '최동호의 윤회적 세계관 구현과 선적 감각의 미적 성취 방법', 강진옥 교수(이화여대 국문과)의 기획탐구 '바리데기의 구약여행'도 눈에 띈다.

현대불교문인협회 기획위원장 로담 스님은 권두언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10년의 역사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불교문예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문예> 편집장 김연자 시인은 "젊은 필진을 영입하고 재능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문예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독자와 문인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존의 사찰 위주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서점을 통한 판매망을 확보해 좀 더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교문예>는 '청소년불교문학상'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불교문학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초 · 중 · 고교생들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시와 시조, 소설, 수필, 희곡 등의 분야를 모집한다. 응모작은 1월 20일까지 <불교문예> 편집실로 보내면 된다.(02)923-3112

2005년 겨울호로 통권 23회를 맞는 계간 <유심>(만해사상 실천선양회, 7천원)의 겨울호에서는 김규동 시인의 '당부', 신경림 시인의 '아, 막달라 마리아조차!', 황동규 시인의 '휘방동이!' 등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담긴 '유심시단', 서벌 시인에 대한 추도시와 대표작, 연보 등을 만날 수 있는 '서벌 추모특집'이 눈길을 끈다. 이번 호부터 연재되는 특별기획 '53선지식을 찾아서'는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과 박세일 교수(서울대),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를 만나 수행과 경제,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편, <유심>은 역량 있는 신인 발굴을 위한 '유심신인문학상' 공모를 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시와 시조, 문학평론 분야로 나뉜다. (02)730-2500 여수령 기자

재미있고 쉽게 읽는 부처님 법문 100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권력이나 부(富)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불교 수행자들은 열반(涅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꼽는다. 열반은 모든 고통이 소멸된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복과 대자유, 해탈을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르침이 주옥같은 감로법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천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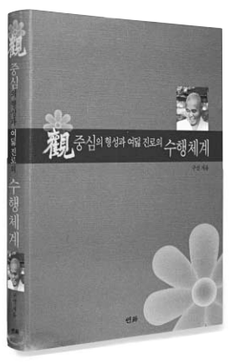
홍사성 불교방송 상무가 최근 펴낸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을 읽다보면 이런 근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책은 <중아함> 222경과 <장아함> 30경에서 선별해 가려뽑은 일화중심의 부처님 육성법문 1백가지를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아함>은 인연 비유와 함께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언행(言行)을 기록해 초심자들에게도 재밌고 쉽게 읽히는 내용들이다.

12인연(因緣)의 가르침을 설한 <장아함> 역시 부처님의 열반과 바라문의 삿된 견해를 타파하는 내용 등을 설하고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고할 만한 교훈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 책이 불자들에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은 불교 언론에서 30여년간 일한 지은이의 촌철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
홍사성 지음 | 장승 | 1만1천8백원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구선 지음
312쪽 / 값 18,000원

見性을 넘어 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의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정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아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제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종영 행정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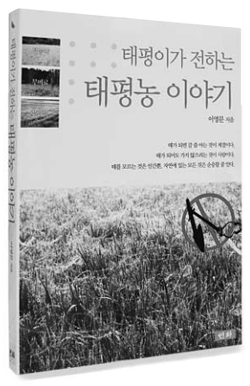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신본) :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화사 수련회 :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역성질환과 성인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 여덟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

선정 / 여덟진로	일선정 一禪定	이선정 二禪定	삼선정 三禪定	사선정 四禪定
중심의 일 心 → 無心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눈다	표면은 철벽, 이면은 텅 비워진 상태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근본의 일 識 → 無念	안팎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면의 비워짐에 의지를 집중한다	표면의 공과 이면의 공이 합일을 이루었다
면모의 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의식의 일치를 이룬다 (수의식의 발현)	존재목적을 설정하고 이치를 타파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의식의 발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의식의 발현)
각성의 일	표면적 유위각 (색의식의 발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각성)	미세적 유위각 (미세망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돈독한 미세적 유위각	일시적 무위각
자기제도	장부순화 (음수련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척추순화 (척추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갈비뼈 순화 (갈비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위장 소장 대장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뼈순화, 채약
교류성의 확 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인과적 관점의 교류를 행한다	교류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조화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존재목적의 실 현	있는 그대로 본다	혼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색계뿐만이 아니라 무색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조화의 성취
인식의 틀 깨기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공고히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증극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로써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오기의 조화와 무상삼매의 증득

※ 이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상수멸정(想受滅定)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세상 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바랍니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 학 일 : 2006년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중앙승가대학교 상징물 도안 공모

1. 응모주제

중앙승가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도안

◇ 상징동물 주제 : 사자형상을 반드시 응용하여 한국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예) 사자와 법륜 : 쌍사자가 법륜을 받든 모양

◇ 중앙승가대학교 교훈, 설립이념을 참조하여 중앙승가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도안 할 것 (학교홈페이지 참조 http://www.sangha.ac.kr/index.php)

◇ 상징물 크기 : 높이 5m 내외

2. 응모요령

◇ 방 법 : 도안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조감도 형태로 제작하여 제출
– 4절지 용지 기준에 각 도면을 별도제작(4매)하고,
제일 첫장에 도안작의 의미와 상징성을 설명할 것

◇ 응모기간 : '05. 12. 20 ~ '06. 2. 28 까지(우편물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3. 상 금

◇ 당선작 (1편) 상금 : 1,000만원
가 작 (2편) 상금 : 각 200만원
– 당선작이 없을 시 본 위원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당선작 발표 : '06. 3. 8. (본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4. 접 수 처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총무처 학교 상징물 현상공모 담당 TEL 031)980-7777

5. 유의사항

– 겉봉투에 학교 상징물 도안 현상공모 작품임을 명시해주십시오.
– 마감일 도착 분(우편물일 경우 당일 소인)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교가 소유합니다.
– 현상공모에 당선된 분에게는 상금 및 상패를 지급합니다.
– 기존매체나 지면 및 현상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합니다.
– 작품 맨 첫 장에 별도로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중앙승가대학교 상징물조성위원회 ·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청암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공고

청암사승가대학에서는 2006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 모집인원 : 00명
◆ 시험과목 : ○ **신입생** – 면접, 초발심자경문, 사미니율의, 불교의식
○ **편입생** – 서류전형(2005년 3월 1일 이전 휴학자)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양면복사본, 본인(법명)도장 및 사진(3×4cm)4매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 도 착 일 : 2006년 1월 18일 수요일(음 12. 19) 오후 5시
◆ 시험일시 : 2006년 1월 19일 목요일(음 12. 20) 오전 8시
◆ 연 락 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청암사승가대학
☎ 054)437-0038
◆ 교 통 편 : 청암사승가대학 승합차가 오후 1시, 4시 김천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오전(7:30, 8:40, 10:40, 11:40) 오후(1:00, 3:40, 4:30)에 청암사행 버스가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암사승가대학장 의 정 지 형

잘 때나 일할 때나 화두와 함께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이 직접 개발한 운동.


철저하게 소식(小食)을 실천하는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을 반갑게 맞고있다.


수좌 스님과 함께 포행하는 수산 스님..

호남지방을 강타한 연이은 폭설에 영광 불갑사도 눈폭탄을 맞은 듯하다. 사방이 새하얗고 군데군데 검푸른 것은 전각과 나무뿐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壽山知宗)스님을 찾아 나선 발걸음이 눈길에 막혀 연기되었다가, 어렵게 불갑사 무각선원에서 뵙게 됐다.

"눈길에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날씨가 차가우니 어여 들어와 차 한잔 하시게나."

해를 넘겨 세수 85세의 수산 스님은 갑작스런 방문객에게 따뜻한 차부터 권한다. 스님과의 인터뷰는 2년 전에도 있었다. 스님은 그때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온화하고 해맑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불현듯, 노스님에게서는 두 해 동안의 도를 향한 구도행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데 젊은 나는 그동안 무얼 했는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눈이 많아도 사나흘은 쉬었다가 내리는데 보름 넘도록 줄기차게 퍼 부은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는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엔 가뭄이 심하고 폭서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눈길에도 스님을 찾는 방문객은 여전했다. 새벽 2시에 일어난 스님은 저녁나절까지 잠깐도 짬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스님은 찾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방문을 활짝 열고 손수 맞이한다.

"눈길에 보잘것없는 노승을 찾아오니 고맙죠. 와서 공부도 묻고, 살기가 힘들다고도 하고, 잘사는 방법도 물어봐요. 그런데 이네들 이야기를 듣고 보면 대부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공부 잘하겠다는 욕심, 잘 살겠다는 욕심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인연 따라 살라'고 강조한다. 먼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고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한다. 덧붙여 '효도'를 강조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물론 어린아이도 아는 가르침이지만 실천하지 않기에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바뀌기 때문이다.

저녁 공양상을 받은 스님은 밥그릇에서 두어 숟가락을 덜어낸다. 스님은 소식(小食)과 함께 손수 개발한 운동으로 몸을 돌본다.

스님은 젊어서 어렵게 공부했다. 힘든 시절에 출가했고, 이미 입적한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되어 은사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새벽부터 잠자리 들기 전까지 일하며 부전을 살아 강원 이력을 마쳤다. 그러다보니 관절염을 비롯해 디스크, 좌골신경통, 변비에 이름도 생소한 눈머리까지 병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거지중이었지. 일하다가도 스님들이 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독송하고 싶어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그렇지만 당시 편하게 지냈거나 호강한 스님들은 대부분 환속했어요. 힘들게 하는 공부에서 도가 나오는 것이니 쉽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20여 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근육과 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에서 앉고 서서하는 요가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하는 운동을 개발했다. 발을 180도 펴고, 가슴이 땅에 닿는 스님에게서 85세란 나이는 무색해 진다.

아직도 관절염은 이겨내지 못해 예불은 방안에서 원불을 모시고 한다. 스님이 직접 청수물 갈고 향 사르고 죽비 삼성으로 예를 올린다.

스님의 일과는 예불에 이어 만암 스님에게 받은 '시심마'를 화두로 좌복에 앉으며 시작된다. 두어 시간이 흐른 후에 앉은 자리에서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하고, 낮에는 진입로 마을입구까지 행선(行禪)을 빼놓지 않는다. 여기에 스님이 손수 제조한 차를 수시로 마시고, 찾아오는 이게게 권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 낙이다.

지난 2004년 고불총림 방장으로 추대되고 바뀐 것이라면 백양사 설선당으로 주석처를 옮긴 것뿐이다.

지난 12월26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고불총림 선원대중을 위해 공양 올리겠다는 전갈이 왔다.

백양사 설선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관 스님 일행을 맞이한 방장스님은 "종단 업무로 바쁜 중에도 먼길을 마다않고 찾아와 수행납자들을 격려해 주어 고맙다"며 치하했다.

방장스님은 지관 스님 일행을 접견하고 진입로 초입에 있는 가인마을까지 산책에 나섰다.

"늙은이 사는 모습 옆에서 본다고 특별한 게 있겠어요? 마음을 보아야지. 화두라는 놈은 희유해서 잠을 자거나 일을 할 때도 함께 해야 편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겉모습 보려하지 말고 속을 봐요."

결국 노스님의 겉모습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가 한 방 맞고 부끄러움에 도망치듯 길을 나섰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욕심 버리고 인연따라 사는것과 효도하는 것이 잘사는 길임을 강조하는 수산 스님은 매일 불갑사 마을입구까지 포행을 한다.

예불·참선으로 하루 시작, 방문객 언제나 환영
소식하며 스스로 개발한 운동으로 건강 챙겨

80 평생 무소유 실천

수산 스님은 수산지종 스님은 192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삼년상을 마친 열아홉(1940년)에 백양사를 찾았다. 이듬해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되어 부전을 살며 강원을 이수하고, 194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오랫동안 만암 스님을 시봉하고 전법계를 받았다.

1957년부터 완도 신흥사, 부안 개암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다. 1975년부터 불갑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1992년 학교법인 정광학원 8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때 스님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을 정리해 정광학원에 기증했다.

가진 것이 있으면 공부가 되지 않는다며 평생 은행통장을 가지지 않았다. 1986년 조계종 원로의원과 2004년 3월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에 추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월관음도

가정의 번영과 안녕의 불화!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높이 88cm, 폭58cm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불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등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옵셋판화인쇄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려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재현시킨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한국불광사

평생 부자지갑

2006 병술년 재운의 해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2006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와 삼재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 고향집에도 최고!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화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고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 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123개의 다양한 채널 3개월간 시청료 무료

월시청료 23,000원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부모님이 계시는 산간벽지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병술년새해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가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맥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부처님에게서 '참사람' 찾아보라


자성 돌이켜 보는 공부에 매진해야 무위진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강조하는 수산 스님.

수산 스님의 가르침

이번 안거기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 빗자루 들랴, 화두 들랴 여느 때보다 바쁜 때입니다. 몸이 부산하다고 마음까지 덩달아 날뛰어서는 안됩니다. 눈을 치우는 순간에도 화두를 놓지 않았을 때 공부는 다른 철보다 크게 진전될 것입니다.

공부는 안거에 들어간 수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불자뿐 아니라 인류가 다같이 자기 자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옷(육신)을 벗어 버릴줄 아는 공부입니다. 이것을 일러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연따라 온 것입니다. '밝게 태어나서 밝게 살다가 밝게 가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오욕이 뚝 떨어져 밝게 살았기에 인간으로 나왔습니다. 그 인연으로 밝게 닦고 살다가 좋게 가야하는데 사람 몸을 받고서는 삼독에 빠져 버리곤 합니다. 밝게 왔건만 어둡게 살다가 어둡게 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어둡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채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성을 돌이켜 보는 공부'입니다.


수산 스님 방에 모셔진 '눈가리고 귀막고 입막은' 세 분의 부처님.

삼한 사온이 없어지고 연이어 내리는 폭설이나, 쓰나미 같은 환경재앙은 자연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자연뿐 아니라 정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방과 세속에서 불법을 아는 이가 공부하는 것은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회광반조(回光返照)'로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예부터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 하나 이에 대한 해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문자나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물건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물건인가?'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물건을 제대로 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행락주의와 거짓된 알음알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이 유식해야 금상첨화지 마음이 어두운 자가 문자만 밝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언젠가 어느 노스님이 부처님 세 분을 보내오셨습니다. 부처님 한 분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분은 귀를 덮고, 한 분은 입을 막고 계십니다. 그 모양새가 웃음을 자아내고 정감이 가서 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 세 분의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요즘 수행자나 재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서옹 큰스님 2주기를 맞아 백양사에서 부도와 사리탑비를 제막했습니다. 서옹 스님은 후학들에게 임제선사의 '무위진인(無位眞人)'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 '참사람 운동'을 펴셨습니다.

빈부귀천, 분별심, 삼독심이 없는 것이 '무위'로, 명예와 욕망이 떨어진 자리를 '참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사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부처님에게서 '참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암 큰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스님이 하루는 중 승(僧)자를 쓸 줄 아느냐고 물어요.

"사람 인(人)변에 일찍 증(曾)자 입니다" 했더니 "먼저 사람이 된 후에 비로소 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사람이 되지 않고 중이 되면 세속 못지않게 승가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 세상은 너나없이 잘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지도 않고 바라기만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염불을 하면서도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지요.

세상을 살면서 듣는 즉시 말하고, 보는 즉시 말하다보니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대로 인연따라 살 때 쉴 줄도 알게 됩니다. 지은 복도 없이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 재앙만 따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건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는 육체와 마음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자세가 바를 때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면 마음도 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몸만 귀하게 여겨 좋은 것 편한 것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자기 몸을 천하게 여겨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 집니다.

이 노승도 젊어서는 요즘말로 '종합병원'으로 불렸습니다.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이 부실하니 공부는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아 보았습니다. 몸을 잡고 나니 잠자는 중에도 화두를 들어야 편하고, 일하면서도 화두와 함께 합니다.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행일치(言行一致)'하면 됩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나 글, 생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자기 일상생활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화두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기 본분을 잘 지키며 소욕지족(少慾知足)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6>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머리에 떠올리고 좋은 말만 나누며 좋은 것만 보아야 합니다. 시작하는 한 해를 별 탈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건네시는 덕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덕담이라면 뭐니뭐니해도 경전의 말씀이 온통 덕담인데 그중에서도 이 칼럼을 사랑하시는 독자분들께 드릴 가장 덕스런 이야기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잡보장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이웃과 무엇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평생 모은 돈을 쾌척하는 이들의 소식이 신문에 끊이지 않고 실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는 살맛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생해서 번 재산을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위해 선뜻 내놓기에는 망설여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번 돈인데…. 말이 나눔이지, 생면부지의 남들에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떼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새해에는 착한 일도 좀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뭔가 좀 가치있는 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나눔이 있으니, 그것은 재물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큰 복을 얻게 해준다.

첫째는 눈을 나누는 일이다. 언제나 좋은 눈으로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티 없이 깨끗한 눈을 얻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하늘눈[天眼]이나 부처눈[佛眼]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첫째 과보라 한다.

둘째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을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에게 찌푸린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단정한 얼굴을 얻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순금색의 몸이 된다. 이것을 둘째 과보라 한다.

셋째는 말씨를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거칠고 험한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나중에 매끄럽고 거침없는 말을 하게 되는 솜씨를 얻고, 그가 하는 말은 남이 믿고 받아 주며,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네 가지 말솜씨를 얻는다. 이것을 셋째 과보라 한다.

넷째는 몸을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를 보면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을 나누는 일이라 하는데, 그리하면 나중에 반듯하고 크고 다른 이가 우러러보는 몸을 얻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몸이 니구타(尼拘陀) 나무와 같아서 아무도 그 정수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넷째 과보라 한다.

다섯째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앞에서 말한 일들로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들에게 봉사했다고 해도 마음이 온화하고 착하지 못하면 나눔이라고 할 수 없다.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밝고 분명한 마음을 얻어 어리석지 않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 일체를 낱낱이 아는 지혜를 얻을 것이니, 이것을 다섯째 과보라 한다.

여섯째는 자리를 나누는 일이다. 부모나 스승, 수행자들을 보면 자리를 펴 앉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앉아 있던 자리마저도 내어서 앉도록 권하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항상 일곱 가지 보배로 된 존귀한 자리를 얻을 것이요,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사자법좌(師子法座)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여섯째 과보라 한다.

지난해 이웃과 무엇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즐거운 낯빛 · 부드러운 말씨로 복짓는 새해를

일곱째는 방이나 집을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 수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마음 놓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서거나 앉고 눕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방이나 집을 나누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저절로 궁전이나 집을 얻을 것이요,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도 온갖 선실(禪室)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일곱째 과보라 한다. 이 일곱 가지 나눔은 재물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큰 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잡보장경 제6권)

경전 속에서는 무재칠시(無財七施)라고 하여 '재물 없이 행하는 일곱 가지 보시'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의 용어인 '나눔'으로 살짝 바꾸어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일곱 가지 나눔에서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볼 참입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을 사랑해주시는 독자여러분! 새해에는 부디 이 일곱 가지 나눔으로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을 지을 수 있는 행운을 함께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본 광고는 개인 의견 광고입니다

시 국 성 명 서

한 명의 과학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박해와 굴욕적인 모욕을 가하며 한명의 뛰어난 과학자를 연구실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MBC는 그를 천하에 없는 사기꾼으로 몰고가며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문 한편을 일부 부풀렸다고 해서 함께 돌팔매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한국은 깨끗한 나라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이래 지금처럼 정부보다 더 강한 언론의 힘을 느껴본 때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뜯는 언론은 제가 53년을 살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황 우석을 죽이려고 하는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그 뒤에는 수많은 의혹이 존재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때 도저히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기에 시인의 양심으로 수행자의 관용으로도 용납이 안되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니던가요?

황 우석 그는 만능인이 아닙니다. 훌륭한 과학자 일 뿐입니다. 한국을 경제에서 회생시킬 과학자입니다. 그런 그를 밖으로 내모는 것은 참으로 한국의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냉철한 눈으로 언론의 의도를 파악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의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촉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저들은 증거인멸과 연대모의를 통해 황 우석 죽이기를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펼칠 것이 우려됩니다.

촛불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승려시인 **밀행** 두 손 모아 말씀 올렸습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번역 용어의 통일’ 해결돼야

동국대 불교문화硏 ‘불교원전연구’ 개선점 모색 위한 토론회

불교학계 원전연구 역량이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역본 원전 연구에 급급하던 불교학계가 이제는 산스크리트어 · 팔리어 · 티베트어본 불교원전을 능숙하게 다룰 정도로 체질이 강해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불교원전연구>가 있다.

<불교원전연구>는 불교 원전 자료 소개 및 원전 연구 풍토 진작을 위해 2001년 창간됐다. 한역본은 물론 산스크리트어 · 팔리어 · 티베트어본 경 · 율 · 논을 연구 · 번역해 소개하는 국내 최초 불교원전 관련 전문 학술지. 지금까지 8권이 간행됐으며 총 55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창간 4년을 맞은 국내 최초 불교원전 관련 전문 학술지 <불교원전연구>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12월 27일 동국대에서 개최했다.

‘불교원전연구-중간 점검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과)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임승택 경북대 교수, 배상환 연구교수(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단), 양승규 · 김호귀 동국대 강사가 팔리어 · 산스크리트어 · 티베트어 · 한문 원전의 번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12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원전연구’ 개선 토론회에서는 체계적인 기획과 번역 용어의 통일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철 교수 “주제별 등 발췌 번역 해볼 만”

임승택 교수 “일관성 위해 용례집 삽입” 제안

참가자들은 “<불교원전연구>가 불교원전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불교 원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불교원전연구> 현황을 점검하는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집중 논의된 문제는 체계적인 기획과 번역 용어의 통일, 열악한 번역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이다.

기조발표에서 김성철 교수는 자율적 연구를 통한 번역을 <불교원전연구>의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이 같은 장점이 계획적인 번역이 필요한 문헌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번역이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중요한 저작임에도 번역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불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주제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김 교수는 “사상별 기획, 언어권별 기획, 인물별 기획, 또는 주제에 따른 발췌번역도 기획해봄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승택 교수는 “<불교원전연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번역 주제와 테마가 미리 설정돼야 소수 인원에 의해 이뤄지는 문헌 번역이 보다 효율성을 띨 수 있다”고 말했고, 배상환 교수도 “장기적인 기획번역을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해야한다”며 김성철 교수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비중있게 거론된 것은 번역 용어의 통일 문제. 한역본과 달리 산스크리트어 · 팔리어 · 티베트어본 원전들에 나타난 개념들에 맞는 우리말이 마땅치 않아, 각 연구자들의 용어 선택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혼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불교학자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불교원전언어 우리말 표기안’을 만들기란 쉽지 않지만,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불교원전연구> 편집진이 표기안 마련과 공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승택 교수는 “일단 개개인에 번역어 선정을 맡겨 두되, 스스로 선정한 용어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각 번역 단편 뒷부분에 용례집을 삽입하자”고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받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물관 · 기념관 허구성 포착

‘전통의 가면 임민수 사진展

전통이라는 이름아래 시대별로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했던 전통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진전이 열린다.

1월 4~10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룩스에서 열리는 ‘전통의 가면 임민수 사진전’은 전통을 재현해내는 공간인 박물관 기념관 등의 사진을 통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이면을 들춰낸 20여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들은 성철 스님기념관의 성철 스님 영정에서부터 구암사 극락전, 독립기념관, 한국민속촌, 대종교 총본사, 지리산 약사도사, 안동 민속박물관, 절두산 순교기념관, 명동성당 성물보급소 등 종교와 전통의 벽을 넘어 다양한 시선을 담았다. (02)720-8488

강지연 기자

클릭! 전국 산사의 아름다움 가득

사진작가 안장헌씨 부다피아에 세번째 갤러리 오픈



안개비가 촉촉이 내려앉은 부석사 무량수전, 메주를 동동 띄운 수덕사 장독대, 눈 덮힌 월정사(사진). 사진작가 안장헌씨의 부다피아 사이버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들이다.

부다피아의 일곱 번째 초대갤러리는 안장헌씨의 ‘마음의 고향 산사의 향기’(www.buddhapia.com/_service/gallery/_000000007)가 장식한다. 1월 4일 문을 여는 이번 갤러리에서는 안장헌씨의 안내로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담은 사찰, 그곳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만날 수 있다.

도선사 길상사 용문사 청룡사 석남사 월정사 수덕사 선운사 내소사 천은사 선암사 백양사 능가사 미황사 직지사 용연사 혜국사 부석사 오어사 관음사 등 전국의 아름다운 산사가 고스란히 옮겨왔다.

‘마음의 고향 산사의 향기’는 부다피아 아트갤러리 ‘사원건축’ ‘깨달음의 미소’에 이은 안장헌씨의 세 번째 갤러리이다.

강지연 기자

한국 대표 詩들 노래로 제작

한용운, 신경림, 민영, 고은 시인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다. 가수, 작곡가, 시인, 노래운동가 등 여러 가지 일을 끊임없는 정열로 해내는 백창우씨가 한국의 대표적인 시들을 엄선해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해냈다.

이 같은 작업의 결실은 책과 노래CD를 한 곳에 담은 <백창우 시를 노래하다>1 · 2(우리교육 刊)에 고스란히 수록됐다.

1권에는 일제 시대 시인 윤동주 이상 김소월 한용운 심훈 이육사 등과 재 · 월북 시인 이용악 함형수 조운 백석 오장환 등의 시가 포함됐다. 요절 시인 기형도 김수영 고정희 임길택 등도 실렸다. 2권에는 한하운 천상병 박용래 박목월 이광웅 등 작고 시인들과 나희덕 신경림 이성복 김지하씨 등 현대 시인들의 시가 두 장의 음반에 담아졌다.

강지연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4>

송구영신

2006년이 밝았다. 희망과 설레임 가득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과학기술 쪽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보니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학법 갈등이 그렇고 황우석 교수 업적의 진위 논란이 그렇다.

황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1개로 보고됐던 줄기 세포가 실은 부풀려진 것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2~3개의 줄기 세포조차도 조작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샘플의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진실을 알기란 쉽지 않고,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검증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상이 되는 세포자체가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로 전화위복 삼아야

단기적 현상에만 집착하는 태도 점검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성향, 인간성 등에 대한 루머는 황 교수를 지지했던 시민들, 특히 과학자의 표상으로 여겼던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허탈감을 안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생명과학 접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황 교수팀의 부풀리기 의혹과 논문 조작에 대해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비판한다. 실제로 과학기술계의 논문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엄정한 이론과 데이터에만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러하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 아니 정치가 못지않게 정치적인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에서 다루는 결과를 사회에 내어놓아야 한다. 그 결과에 의해 연구비가 결정되고, 연구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 역시 사람들의 집단이므로, 연구원들 간의 경쟁심리, 연구결과의 공정한 분배 등이 항상 연구책임자를 어렵게 만든다. 일반 시민들은 과학기술 실험의 데이터가 엄밀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측정은 항상 사람들이 만든 기계로 하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줄기 세포를 얻은 황 교수팀이 당시 가졌던 흥분, 그리고 좀더 좋은 데이터를 내고 싶었던 심리상태에서 데이터의 부풀리기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를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인 많은 난자를 어떻게 채취, 공급하는가, 이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난자 대신 사용 가능한 대체 물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야말로, 황우석 기술(비록 단기적으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의 응용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열쇠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시비를 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자. 특히 생명과학 기술이라는 생명과 분자 차원의 구분이 애매한 문제에 직면할 때, 생명의 흐름이 무생물까지에 이어진다는 부처님 법을 떠올려보자. 부처님 법 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 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www.chorokwon.com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겹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사 모 곡

– 현대불교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작 –

현대불교신문사장상 / 류영식 (광주시 북구 동림동)



그림 · 문병성

출발과 희망을 노래하는 개나리가 피어나는 봄이 대지를 녹이고 나면 연록색의 대자연은 짙푸른 몸짓으로 폭양을 내리쬡니다.

때론 질풍같이 몰아치는 폭풍우를 먹고자라 알알이 영그는 계절은 황금빛 자연으로 화(化)하여 우리네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가을이라는 단어로, 게으른 자에게는 허탈을 부지런한 자에게는 결실의 아름다움을 한량없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등산 기슭 산사에서 실바람에 한잎 두잎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으악새의 애절함과 만추에 취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무엇을 말하는지, 으악새의 사연은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조심스럽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개나리꽃 핀 봄엔, 그 여름엔, 그리고 이 만추에….

몇 살 때인지 확연히 알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간간히 사찰을 찾으시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전남 고흥군에 자리한 수도암이란 암자에 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등에 업고 그 암자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친구들은 사찰의 신장이나 탱화를 무서워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먼 곳까지 어머니 따라 왔다고 하며 예뻐해 주시고, 스님이 쓰시던 염주나 목탁을 만지며 놀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스님이 가깝게 느껴졌고, 귀동냥으로 들었던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저나름대로 흥얼대면서 친구들에게 스님 흉내도 곧잘 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절이 뭔지, 합장이 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절에 갈 때마다 어머님께서 머리에 이고 가신 것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미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소리에 스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는 기쁜 마음에 법당으로 뛰어 들어가 어머니보다 먼저 스님께 삼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저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첫 스승은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사찰을 찾으셨던 날이면 저 혼자 사찰에 가게 되었고, 법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서는 어떠한 경전도 제대로 알고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직 가족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야 커다란 가르침 깨우쳐
'달리는 법당서 열심히 포교' 서원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저는, 저승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의 큰 법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경전 한 구절, 법문 한 구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 없이도 너 혼자 사찰을 찾아 부처님 전에 공양올리고 바르게 살았구나"하고 칭찬하는 말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교와 관계되는 서적과 법요집을 뒤적였습니다. 법회가 있으면 법사님의 법문을 요약해 노트에 정리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법문 노트가 3권으로, 앞으로 몇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날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인 저를 데리고 사찰을 찾으셨던 어머니가 떠나신 뒤, 저는 부모가 되어 지금 제주의 한라부터 진주 남강을 건너 마 · 창 · 진을 지나 부산의 해운대를, 포항을, 울산의 태화강변을 건너,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을 돌아 대구의 팔공산 갓바위를 휘어감고, 대전의 한밭을 가로질러 전주의 효자동에서 천안의 늘어진 수양버들 아래서 잠시 쉬었다 안양, 제천, 수원, 의정부를 거쳐 청주, 충주를 돌아보면서 원주의 치악산 구룡사의 범종이 장엄하게 울릴 때까지 한국 운불련은 쉼없이 정진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두의 천지가 넘실대는 날까지 한국 운불련은 3천여 가족과 함께 할 것이며 그 시작은 무등산 기슭에서 병술년의 햇살과 함께 더 힘찬 행보가 시작 되리라 삼보 전에 서원해봅니다.

마침 저만치에서 앉아있는 아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산천은 날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날보고 티 없이 살라"했는데 "어떻게 산천이렇게 만추에 단풍들어 있는 산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들이, 어머니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만치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광주지역 제9대 회장직은 을유년과 함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육바라밀행을 닦아 보현행원으로써 맑고 밝게 나와 이웃을 함께한다는 부처님 법을 설(說)이 아닌 행(行)으로써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닌 한국운불련 광주지역회 회원 그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해 연꽃과 같이 아름답게 지역불교 포교에 매진하기를 발원합니다.

늘 해옴이 헛되지 아니하여, 바다건너이, 그리고 창공이 말을 하느냐"고, "여태껏 들으려 해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은데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앞서 어머니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 때까지 어머님이 살아계셨지만 그런 질문을 해 보지도 않았고 해보려고도 못했었는데 하고서 말입니다.

아들이 기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건네는 아들 녀석이 너무 기특하고, 그런 아들이 있게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만약 글을 모르는 것을 무식하다고 한다면, 저의 어머님은 무식한 분이셨고, 그런 무식한 분이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눈동자에서 진실을 배웠고, 그분의 무릎에서 인생을 배웠고, 그분의 손길에서 정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애정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의 스승인 어머님께서 지금은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제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지켜보시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제가 자만에 들려할 때면 자숙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려 할 때면 맑은 정기를 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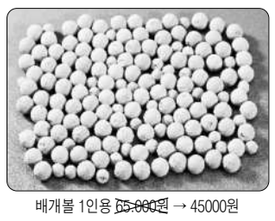
그래서 저의 곁에는 늘 <부모은중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무식하지만 다정했던 나의 어머님! 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저의 어머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뵈올 날까지, 저는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합장정례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무등산 기슭의 해가 서산에 저물어 가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으악새 소리가 뒹구는 낙엽이랑 합창으로 이만 하산하라 합니다. 일어서려니 열두살 아들 녀석이 목청껏 <반야심경>을 염송하면서 앞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니 아들이 더욱 기특히 여겨졌습니다. 아들 손을 꼬옥 붙잡고 십오리가 넘는 산길을 돌이서 걷다보니 어느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 **들숨 :**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챠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 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견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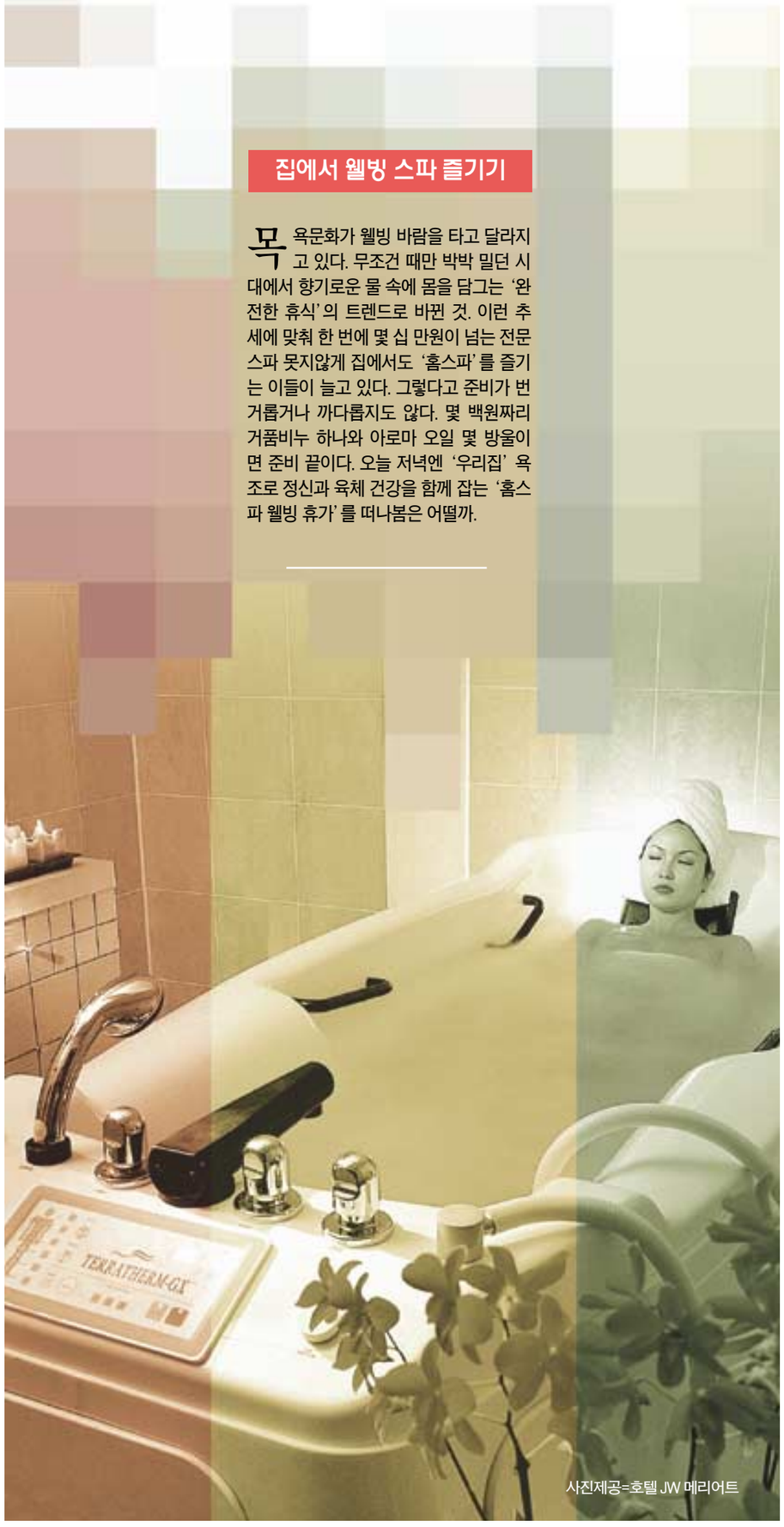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 / 전화 02)379-2996

특급호텔 스파 따로없네

집에서 웰빙 스파 즐기기

목욕문화가 웰빙 바람을 타고 달라지고 있다. 무조건 때만 박박 밀던 시대에서 향기로운 물 속에 몸을 담그는 '완전한 휴식'의 트렌드로 바뀐 것. 이런 추세에 맞춰 한 번에 몇 십 만원이 넘는 전문 스파 못지않게 집에서도 '홈스파'를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준비가 번거롭거나 까다롭지도 않다. 몇 백원짜리 거품비누 하나와 아로마 오일 몇 방울이면 준비 끝이다. 오늘 저녁엔 '우리집' 욕조로 정신과 육체 건강을 함께 잡는 '홈스파 웰빙 휴가'를 떠나봄은 어떨까.



사진제공=호텔 JW 메리어트

홈스파 어떻게 할까

물 37~41도, 오일 양 4~6 방울 15~20분 정도, 일주일에 두번 적당 가벼운 마사지로 피부 탄력 유지

서라벌대 웰빙테라피학과 장태수 교수는 "홈스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와 아로마 오일의 배합이다"며 "가장 이상적인 목욕물의 온도는 37~41도 사이고 오일의 양은 4~6방울이 적당하다"고 말한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모공과 혈관을 수축시켜 노폐물 제거가 어렵고 너무 뜨거우면 피부를 거칠고 건조하게 한다.

또 장교수는 "피부 미용에는 따뜻한(38도) 물이, 날씬하게 하는 효과에는 뜨거운(42도) 물이, 부기를 빼는 데는 찬물(5도)이 좋다"고 조언한다.

목욕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목욕 전에 찬물이나 허브티 등을 마셔 갈증과 피부 건조를 풀어 준다. 목욕 후 신진대사의 순환이 좋은 상태에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해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빠져 몸에 좋다.

목욕 시간은 15~20분 정도면 1주일에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 30분이 넘어가면 오히려 피로가 쌓인다.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소화에 무리가 생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욕조에 물을 받을 때는 아로마 오일 또는 가루나 젤, 고형 비누를 수도꼭지 바로 밑에 놓는다. 이렇게 하고 물을 세게 틀어놓으면 한결 풍부한 거품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름 성분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물의 혼합이 더 잘 된다. 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소금을 두 스푼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입욕을 할 때는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 이 때 들숨보다 날숨의 시간을 두 배 길게 한다.

본격적으로 입욕을 시작하면 부드러운 스펀지에 보디 클렌저 등을 묻혀 부드럽게 닦아낸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목욕용 타월로 힘을 주어 때를 밀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도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 각질이 심하게 쌓인 부위는 보디 스크럽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입욕이 끝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다. 이때 입욕제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비누와 샴푸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욕은 목욕탕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목욕 후 수분 유지가 더 중요하다. 목욕이 끝난 후 물기를 닦고 피부 타입에 맞는 보디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수분 증발을 막아 보습에 좋다.

또 온몸에 오일을 적당량 바르면서 손으로 문지르거나 가볍게 두드리고 손가락으로 꼬집듯 잡아당겨 오일 마사지를 하면 보습은 물론 피부에 긴장감과 탄력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아로마 홈스파 효과는?

목욕 소금 긴장감 스트레스 해소 아토피 환자는 로즈워터가 효과 당근 레몬 이용한 입욕제도 좋아

시중 홈스파 관련 제품은 홍수를 이룰 정도로 많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건 없다. 아로마, 허브, 소금, 오일, 생크림, 우유, 꿀 등 생활 속의 각종 재료들이 모두 스파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아로마 샵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살펴보면 물에 넣는 입욕제와 각질을 제거하는 스크럽제, 마사지 오일, 보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입욕제로는 향을 더하는 에센셜 오일이 대표적이다. 목욕 소금도 많이 쓰는데 소금에 에센셜 오일을 넣으면 물과 잘 섞인다. 거품목욕을 원한다면 비누 타입이나 보디클렌저를 물에 풀어 써도 무방하다. 겨울에는 유분이 많은 로션이나 크림 타입이 좋고 여름에는 오일성분과 수분이 포함된 보습제가 청량감이 있어 좋다.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으면 파우더 타입을 권한다.

아로마를 이용한 홈스파는 각각의 아로마가 가진 특성에 따라 효과도 다르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로즈마리는 피부에 활력을 주고 페퍼민트 성분이 있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쿨링효과를 준다. 목욕 소금인 수딩 아쿠아 테라피는 피부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며 사해 소금을 함유해 피부에 미네랄을 공급해 준다. 기침이나 인후통을 동반한 감기 몸살엔 라벤더와 유칼립투스가 좋다. 근육통을 동반한 감기몸살엔 그레이프푸르트, 레몬 등을 이용한다. 만성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는 로만카모마일, 주니퍼베리를 넣고 목욕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저먼카모마일과 로즈워터를 섞어서 목욕하면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라벤더와 샌달우드, 레몬을 섞어서 입욕하면 가려움증을 억제하고 피부를 강화시켜 준다. 여성들의 경우 제라늄과 마조람, 베르가못 등을 넣고 입욕하면 생리통 및 생리불순과 갱년기장애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에서도 쉽게 당근, 레몬, 녹차 등을 이용해 아로마 입욕제를 만들 수 있다. 거친 피부에 좋은 당근과 레몬을 이용한 아로마 입욕제는 당근과 레몬을 얇게 썰어 30분 정도 달인 후 달인 물을 목욕물에 섞어 목욕하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면 녹차를 이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시고 남은 녹차 잎을 잘 말려 목욕할 때마다 한 주먹씩 넣어 사용한다. 암내가 심한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독소를 제거해 피부 진정 효과도 있다.

글=노병철 기자

아로마 스파시 주의사항

1. 100% 순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
2. 아로마 원액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3. 임산부는 입욕 시 전문가와 상의한다.
4. 어린이, 노약자들은 표준량보다 더 묽게(1/3) 사용한다.
5.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한다.
6.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혼합 비율을 정확하게 지킨다.
7. 점막부위(눈, 코, 구강 등) 또는 그 주변부위의 사용을 되도록 피한다.
8. 고혈압, 저혈압, 간질 환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입욕한다.
9. 동일한 오일을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10. 변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

대한불교조계종
옥수동 미타사
주 지 문수
총 무 종일
재 무 성현
교 무 법천
대중일동
미타유치원 02)2297-7982
원 장 성현
교직원 일동
서울 성동구 옥수동 395
TEL 02)2297-7548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협의회 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문스님/부장 채종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부장 박신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여스님/부관장 정순화/부장 조수경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부장 배의식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부관장 김맹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련스님/부원장 서봉스님/부장 김민아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스님/과장 홍석환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혜총스님/부관장 이춘성
■영주암어린이집 원장 범산스님/원감 양금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총스님/부관장 이춘성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부장 한승미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법인 혜 원 이사장 원허스님/사무국장 이명숙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사무장 노상희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원장 윤숙자/사무국장 채인숙
■조계종복지재단 부산보현의집 원장 이기표/부장 정흥희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소장 지장스님/부장 정현숙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김영곤/실장 박경란
■실버요양원 상락정 실버빌 원장 정관스님/사무국장 윤기혁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서화당인생풀이 V2.2 (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기능, 출력기능까지 (그간 3,000여장 판매실적) ☞ "특허받은「사주천하」LG산전 납품실적"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 약선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식단 및 이로운식생활제공
인장성명학 사주풀이 및 이름자 뒤에 인,장,점 등 표기설명, 성명풀이(한글, 한자), 작명(항렬자, 돌림자 풀이)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트 한정 판매이며, 세트 판매 주문은 2006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종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금처 : 우체국 313049-01-003391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농 협 453050-55-002174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문후 택배로 익일에 도착합니다>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송인창
☎ 050-2266-3366 / H·P 010-3366-3366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비영리공익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부종정 석정관 원로원 원장 석화담
종의회 의장 무송

호법원 원장 대원 교육원 원장 구진
포교원 원장 보광 연수원 원장 도명
총무원 원장 도법

●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무초
문화부장 도심
연수부장 성운
포교부장 지광
비구니부장 혜광

※ 각부국장
문화국장 시행
연수국장 지우
비구니국장 영암
의전국장 원명

● 포교사단
서울포교국장 보현
부산포교국장 용정
대구포교국장 혜원
경기포교국장 자운

● 포교자문위원
청암스님 성안스님
원각스님 법정스님
청강스님 진광스님

●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북종무원 원장 태룡 제주종무원 원장 의공
충남종무원 원장 수암 충북종무원 원장(대행) 선학
경남종무원 원장 원타 대구종무원 원장 성진
대전종무원 원장 혜각 경기종무원 원장 진공
사서실국장 성보 수행국장 보각
수행특보 성덕 성수

총무원 : 서울서대문구 홍제3동 266-76(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2)391-8583

경남법사단종무원

법사승단종무원 원장 도혜 대법사

종무원.총국장 혜명법사
종무 1국장 목암법사
수진법사
혜진법사

●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법사
부산지부 051)865-7975

● 충남지부종무소
지국장 성각법사
충남지부 041)547-1442

● 강원지부종무소
지국장 덕경법사
강원지부 033)553-6653

● 포교사단
태성법사 법정법사 혜경법사
혜연법사 개안법사 자은법사
혜정법사 덕운법사 혜담법사
법성법사 혜운법사 해진법사

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대표전화 055)241-0253

財團法人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장 경원 종정 붕해 총무원장 동봉

명예이사장 붕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혜운
이사 무찰
이사 동암
이사 동봉
이사 도기
이사 지공
이사 일명
이사 법광
이사 담화
감사 혜천
감사 혜원

장로의장 금봉
장로부의장 명종
장로위원 수암
원경
청송
송은
원각
혜운
고시위원장 청송

호계원장 용암
감사원장 화엄
포교원장 원각
선거관리위원장 법성

종회의장 지공
종회부의장 정수
사무처장 도안

종회의원 덕봉
법재 용주 인오
법안 지운 지언
법정 성각 삼주
남혜 덕산 보광
송암 대호 법경
청표 호암 무공
무연

총무원부원장 혜천
총무국장 일웅
재무부장 영명
재무국장 일명
교무국장 동청
규정부장 지성
교육부장 법해
사회부장 경운
사회국장 영우
홍보부장 성각
홍보국장 효산

서울교구 총무원직할
부산수습대책위원장 법상
대전교구 도안
인천교구 유정
울산교구 화엄
대구교구 석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법해
경기북부 도혜
경남교구 정수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충남교구 영명
충북교구 총무원직할
제주교구 총무원직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 TEL 02) 998-8161, 2 / FAX 02) 998-8384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엄지빌딩 4층

(社)大韓佛教 曹洞宗 任員

丙戌年 新年 元旦을 맞아 宗團 高僧大德스님들의 法體康寧하시옵고
佛紀2549(2005)年 12月27日 第37次 中央定期 宗會에서 宗團 幹部 스님들의 職責을 公告합니다.

宗正 尹智明 **副宗正 崔諸空**

宗正司書室長 釋光慧

僧正院長 : **韓春潭** 僧正委員 : **崔圓峰 安松峰 朴智雲 鄭戒雲 陳性雲 金大觀 朱禹泉**(無順)

總務院長 朴心月
副院長 宋德性
中央監察院長 黃德牛
中央宗會議長 禹海倫
中央布敎院長 金統元
中央敎育院長 釋行文
國際文化院長 金法空
護法院長 成慧泉
中央律院長 元雲潭
中央企劃室長 孫慧覺

中央宗會副議長 安志遠
中央宗會副議長 許雲性
中央禪院副院長 趙法晋
護法副院長 朴慧法
總務部長 安慧光
財務部長 李法蓮
敎務部長 金月潭
監察部長 趙行修
糾正部長 嚴法華
敎育部長 張行梵
調查部長 林慧山

서울敎區宗務院長 金德龍
京畿敎區宗務院長 釋無空
江原敎區宗務院長 李萬慧
永東敎區宗務院長 金慧空
忠北敎區宗務院長 金日長
慶北敎區宗務院長 朴雲鶴
慶南中部敎區宗務院長 梁海日
慶南西部敎區宗務院長 黃法光
南海敎區宗務院長 車行悟
釜山敎區宗務院長 鄭德正

中央宗會議員(無順)
禹海倫 金統元
安志遠 許行滿
釋行文 金德龍
成慧泉 金慧空
安慧光 李法蓮
嚴法華 林慧山
李萬慧 趙大法
金日長 朴德海
梁海日 李慧山
黃法光 車行悟
鄭德正 張行梵

총무원 : 서울特別市 江西區 登村洞 570-6號 전화 02)2062-0725 / 팩스 02)2062-0726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련사
주지 지명(덕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 FAX 02)379-6938

대한불교 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주지 대은
신도회장 김진선
사부대중일동
■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TEL 02)938-1405

대한불교 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덕사
주지 해륜 행봉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481
TEL 033)432-7345 / FAX 033)432-7344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추읍산 금강사
주지 달제(지운)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 2리 128-1
TEL 031)773-4747

대한불교 조동종 부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지 덕성
사부대중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 FAX 02)2607-6155

대한불교 조동종 포교원장 주석사찰
천마산 석본사
주지 통원 행원
부주지 준일
사부대중일동
■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리 240-1
TEL 031)573-4848

대한불교조동종 남해교구종무원
관음기도도량 금옥사
주지 청운 행오
사부대중일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55)746-1778

대한불교조동종
지장기도도량 광덕사
주지 광덕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봉곡동 16-6
TEL 016-844-6995

대한불교조동종
지장기도도량 복천사
주지 청아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장대동 83-23
TEL 011-832-1724

대한불교조동종
지장기도도량 천룡사
창건주 김효순
주지 석봉
사부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53
TEL 011-8662-5796

대한불교조동종
지장기도도량 도명정사
주지 덕도 학산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장재동 258
TEL 055)754-8293

대한불교조동종
미타기도도량 미타사
주지 법진
사부대중일동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487
TEL 055)323-6082

(사)대한불교일련종
소원사
창건주 성월
주지 산해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상리 금야마을 1151
TEL 055)759-6637

대한불교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지 김무원
신도회장 이종상 외
사부대중일동
■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 71-2
TEL 032)567-2533

대한민국 군포교 사찰
정토원
주지 장고봉
관세음보살 108원불조성을 위한
신묘장구대다라니 100일기도 봉행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561
TEL 053)984-0409

대한불교일승종
성가사
주지 성감(송현출)
신도회장 최병일
신도부회장 김명자
총무 이순권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내일이면 늦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707
TEL 053)781-2034/011-527-203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 법당: 15평 ● 요사: 30평 ● 부지: 3000평 ● 가액: 3억5천
● 위치: 강원 ● 법당: 23평 ● 요사: 20평 ● 부지: 5900평 ● 가액: 3억
● 위치: 부산 ● 법당: 30평 ● 요사: 120평 ● 부지: 107평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시내 큰절구함
2.창원사찰1200평-1억5천
3.수유포교당40평-2천/70
4.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산신각, 독성각,요사채 3동
● 가액 : 1억 5천 6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탑동
● 대지 : 600평 법당 : 25평 요사 : 37평
● 가액 : 3억
055)271-8496
011-768-8744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굴 안 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구곡단지내
● 대지 120평 건평80평 1층 50평 요사, 2층 30평 대웅전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 1억8천 설정)
※ 비구니 스님 수행처로 적합
010-9292-4828

토굴,사찰, 선방부지 안내
● 위치: 지리산~덕유산 사이 백두대간 주능선 50m
● 관리지역 : 대지,잡종지,전 합1600평
● 건물현황: 황토방5동,강당1동, 창고2동,사무실1동,취사동1동
● 이전관계로 매매 합니다.
● 매매가격 5억2천
주인직 010-3684-9288
오후 2시 ~ 6시사이 통화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파계사옆 차로3분거리
● 절터 평수 662평
● 대로에서 산속으로 850m 인허가 받아줌
● 가액: 9억
010-3120-4017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가액: 3억 5천만원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영덕 풍력단지 내 영덕대게 특구지역
● 평수 : 940평 전용허가 200평
● 진입로 포장 상수도 완비
010-7109-328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2-60호 당고개역에서 1분거리
● 법당 : 실평수 18평 1종 반지하 17평, 옥상 다락방
● 부지 평수 33평
※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 유타원지역으로 허가됨
● 가액 : 3억 3천만원
02)939-2800
011-894-2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불로동 4층건물의 3층
● 평수 65평, 법당 50평, 주방1, 방3,
● 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소불 200불
● 가액 : 1700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1-509-152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마포구 빌라 5층중 3층(27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거실, 삼존불, 탱화
● 가액: 전세 1억1천만원 시설협의절충
010-6234-0149

암자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 대지: 80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 스님방
● 가액: 1억5천만원
017-563-1188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 임야 5천평, 준농림지
※ 종교용지, 팬션, 휴양지로 적합
● 가액 : 평당 7만3천원
※ 제천경계 구역.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입구까지 트럭 진입가능
영신부동산 031)382-8945

토 굴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통 고속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전체평수: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4평 황토2중 흑벽돌집
● 신축한지 1년 토굴 또는 별장으로 적합함 부처님 신중탱화등 다 모셔져있음
● 가액: 1억7천만원
016-337-9736

포교당(급) 안내
● 위치: 대전시 유성구 (시장부근)
● 평수 25평, 3층중 2층 전체
● 법당 신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25만원(시설비 250만원)
● 철학이나 침술하시는 스님, 처사, 보살님 환영
※ 해외 사찰 파견으로 급히 안내
019-619-32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안계면
● 대지: 150평
● 건평: 54평중 조립식 7평 (방1,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임법당 47평(재래식 화장실2,창고1, 방1, 목욕탕1) 기름보일러, 거실 50명 수용가능 뒤는 산 넓은 마당
● 가액: 3천만원
019-265-2426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각시식	사시식	바라나비 물	경충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단)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주방보조(여)구함
55세미만, 경력무관함
국가보훈대상자 숙 식 하 실 분 환영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소재지: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02)385-8205

老母모시고 사는 비구승 입니다
작고(규모) 적고(금액) 아담한 암자 (절터) 저렴한 보시가격에 구합니다
※老스님, 보살님 모시고 사찰관리도 좋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부전 · 기도스님 등 기타 노모를 모시고 살아 갈 수 있는 곳 연락주십시요
010-7281-2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염불암
053)982-0226
010-3189-8745

비구니스님이 되실분을 기다립니다
011-727-1514

비구 부전자리 원합니다
개인사찰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017-571-5599

건강하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9723-0967

사찰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무경력자도 가능함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041)673-2333
011-9810-8887

산좋고 물좋은 아주 깨끗한 내원암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예천
054)653-1180

기도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1-9342-98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054)971-75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40~50대 숙식가능한 분
보시금 월 100만원
011-584-3535

공양주보살 및 막일할 처사구함
▷보시 각 80만원
행자모집합니다
010-3070-353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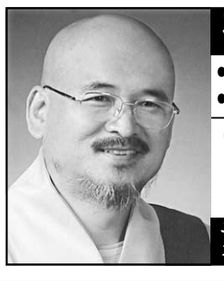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 자 모 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 주 특 별 개 인 지 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제 559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월 4일(음력 12월 5일) 수요일

한마음 넓게 써서 세세생생 자유인이 되어라!

여러분께서 차원이 높게 정신계를 밟아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만물 만생이 다 둘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배울 점이 없었고, 또 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배울 점이 없었을 겁니다.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머무름이 없이 일체 만법을 행하는 도리를 정신 차려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더더욱 감사하군요.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기 집행유예를 받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마지막 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데 망상이다, 졸음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합니다. 둘로 보는 까닭에 못 하는 것이지 둘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망상이라고 보겠으며 졸려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겠습니까? 일하느라고 못 한다, 졸려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한다, 망상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문제들에 여러분이 매이신다면 영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나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조 스님의 뜻을 본다 하더라도, '불성인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으로 인해서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주인공이라는 것은 불이 들어오게끔 전체가 작용되도록 한마음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것과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을 포함해서 주인공이라고 하고, 그대로 한마음으로 딱 당쳐서 주장을 세운 것이 바로 근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또 스치기만 하면 말아서 피를 빠는 풀이나 나무나 어떤 동물이든 다 결들여서 있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그 정글을 넘어가야 대로(大路)가 나오는데 정글을 가는 길에 무슨 잡담이 필요하고, 정신을 어디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아가면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냥 타파하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이다 할지라도 '망상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에 잠이 온다 하더라도 잠자는 게 잠자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니듯. 모두가 이렇게 그대로 여여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진리요, 참선이요,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법이 다르고 부처님의 법이 다르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우리들이 즉, 부처이자 중생이니까요. 그러니 3천 년 전에만 부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떠한 망상이든, 애고든 병고든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내 생명이 지금 위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끄달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텔레비전 몸체와 화면 같은 외형을 어떻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바로 심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이날까지 끌고 온 그 장본인, 불성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을 나라고 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비유한다면, 속의 기능이 없어도 안 되고 화면이 나오는 몸체가 없어도 텔레비전의 역할을 다 못합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먼저고 나중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 하시는 데는 절대로 끄달려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끄달린다는 말이 거기 들어갈까?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없어도 아니 되고 물질만 있어도 아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도 연결 연결을 짓고 돌아가는 데는,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 돌아가려는 데는 바로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마음의 그 무한한 레이저 광선, 마음의 레이저 광선은 무한이지만 물질적인 레이저 광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광선이 지금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하다못해 라디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무한량으로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사대 성인들과 깨달은 분들 모두가 다, 역대를 거치면서 발견한 것이고 연구한 것이고 실천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머리 깎은 사람과 머리 안 깎은 사람이 다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 시절에 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풍부해야 들이고 내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고 또 모가 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지혜도 주어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정글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중세계에서 승진을 하느냐 하천세계로 좌천이 되느냐 하는 판국이죠. 좌천이 되면 세세생생에 쳇바퀴 돌듯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끌려 다니면서 고(苦)를 면치 못해요. 자기뿐만 아닙니다. 수십억의 중생들이 내 몸속에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눈팔 사이가 어딨습니까? 그렇다고 신경을 쓰고 모질음을 쓰면서 '아이고, 이걸 끓어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데, 공부를 어떡하면 잘할까?' 이런 걱정 근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생활이 종교이고 참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사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못 믿어요. 다른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허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자기는 못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가는 그놈을 자기가 왜 못 믿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 보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놈, 일을 하게 하는 놈, 하기 싫게 하는 놈, 싸움을 하게 하는 놈, 성이 나게 하는 놈, 이 모든 놈이 전부 한 놈입니다, 한 놈! 그것을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될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나, 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사위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말도 뜻도 행도 그렇게 바뀌지면서 돌아가는데 어떤 딴 놈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법이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 한 놈이 그렇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벌어진 것을 용도에 따라서 들이고 내는 데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니까. 그 한 놈이 누구입니까? 그 한 놈이 바로 우주를 싸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전에도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얘기했죠? 일체 만물은 연결 연결돼서 바로 공생으로서, 공용으로서, 공식화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이라고요. 각자 마음마다 가설이 돼 있다구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둘이 되죠? 그러나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라고 놓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옥이나 천당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돼지같이 살면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뱀같이 살면 뱀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공부를 증득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에 꿰고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계단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리고 계단을 정글이라고 해도 됩니다마는 이게 공부하는 데에 정글이라고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을 한 계단 한 계단 걷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단이 그렇게 많아서 그 길을 똑바로 걷질 못하고 온통 그냥, 여기에 끄달리면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피하고, 사자가 온다고 피하고, 정글에서 어떤 풀이 몸을 감으면 또 안 감기려고 피하고,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닥쳐도 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아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둘이 아닌 까닭을 알면 한 잘나에 내가 풀이 될 수 있어서 내 몸을 말아서 피를 빨아 먹는 어떠한 물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피를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풀도, 무정물도 식물도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생시에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모두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데 뭘 그래!' 하고 놨을 때에 바로 꿈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과 생시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닥치든지 또는 구렁이가 닥치든지 또는 사자가 닥치든지 어떠한 게 닥쳐도 궁색하게 피하지 말고, 가정에서 어떠한 애고가 닥치든 병고가 닥치든,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피하지 말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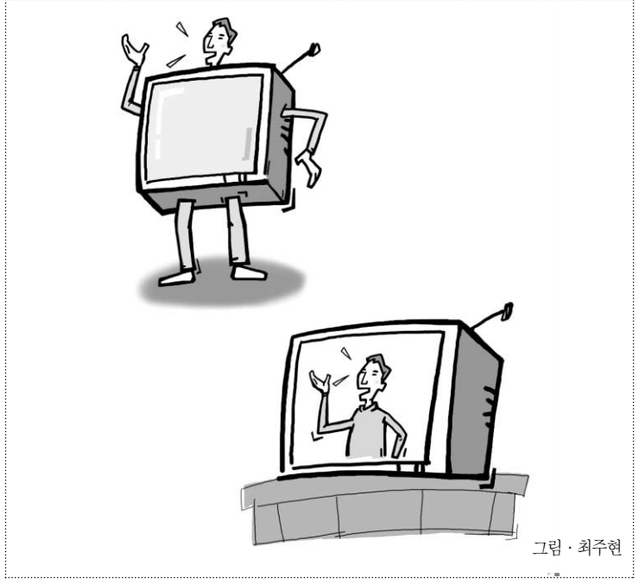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들이고 낸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마음의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에 들은 의식들이 다 딴 사람입니까? 딴 데 있는 겁니까? 내 한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은 바로 별성들이요, 나, 이 모체(母體)가 전체를 담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혹성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들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성이 따로 있고 별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움죽거릴 때, 위장에서 움죽거릴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하겠습니까, 간장에서 움죽거려야 내가 움죽거렸다고 하겠습니까? 소장입니까, 대장입니까? 전체가 나 아님이 없는 겁니다. 한 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각 본다면 파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이 되니까. 이건 대립이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애고라든가 영계성 · 유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런 게 모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대치하려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가 나오게 한 거니까 네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마음을 쓰는 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그냥 따를 뿐이지 어디로 다니는 줄 우리가 압니까? 무엇을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그렇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다 직결해서 '네가 하는 일이니까 네가 잘해야 되잖아, 이끌어 가야 되잖아.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이끌어 가야 네 심부름을 잘하잖아.' 하고 그대로 놓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우주를 한 꺼번에 집어 먹고, 집어 먹을 것도 없이, 버릴 것도 없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받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된다 이 소립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해인(海印)의 증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큰 바다에 만물 만생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입해서 한마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바다에는 도장을 찍어도 찍은 사이가 없고, 찍을 사이가 없건만 찍은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몽땅 '당신이 옳소.' 하고 찍는 것과 같죠. 왜냐? '옳소' 하는 것은 둘로 봐서 옳소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몽땅 한데 합쳐 한자리를 파악한 것이 바로 해인입니다.

한 가족 안에 아들 딸들이 전부 아버지를 찍지 누굴 찍습니까?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한 가족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둘로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자비가 줄줄줄줄 그냥 흐르고 있으니, 그대로 합일이니까 그대로 도장이죠. 그러니까 너 나를 가른다면, 잘못하고 잘하는 걸 가른다면 합일이 될 수 없죠. 잘한다고 한다면 항상 못하는 게 거기 끼어들고, 못한다고 한다면 잘하는 게 끼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끝이 안 나요.

그러니 공부하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막을 파헤쳐 본다면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요걸 보세요. 지수화풍도 우리에게 당장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사는 것은 물주머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서 사는 생물들 모두가 그냥 물주머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물로 인해서 공기가 되니까, 우리도 물주머니에서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든지 거기에서 이탈을 한다면 다른 병고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수십억 마리의 마음도 내 마음 한마음에 다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죠.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어떤 꿈을 꿨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 잘 먹겠다." 이러기에, 다른 친구가 꿈을 안 꾸고도 그런 꿈을 꿨다고 꿈 얘길 하니까 "아, 너는 매를 진탕 맞겠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매를 진탕 맞고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고 또 가서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꾸민 것도 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않고, 어떤 귀신이 닥친다, 어떤 애고가 닥친다, 어떤 유전성이 닥친다 하더라도 '허허!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무슨 그런

☞18면으로 계속

본래 생활이 종교이고 참선이기에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일체 만법을



그림 · 최주현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모든 것을 일체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주인공으로 인해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또 거기다 말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주인공으로 인해서 자유자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새겨 보신다면 우리 모든 행이, 일체가 다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길을 적절히 택했다면, 아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길이 깊은 정글이라고 합시다. 지금 깊은 정글을 지나가는데

바쁘게 서둘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17면에서 계속

일이 있겠는가.' 하고 자기가 한생각에 돌려놓으세요. 돌이 아니라면 모든 게 그냥 하나로 돼 버려요, 흔적도 없이. 불에 어떤 것을 넣든 타 버리고 물이 증발되듯이.

어떠한 게 닥치면 관습에 의해서 '아,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여태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건 못하고 하고가 항상 따르게 마련이죠. 진짜로 믿고 들어가는데 하고 못하고가 어딨습니까? 내 생명이 그냥 이 자리에서 앗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허!" 할 뿐이죠. 내가 들로 본다면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지만, 들로 보지 않는다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죠.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미묘한 법으로써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다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지 말고 정진해라.' '망상을 끊어라.' 철저히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까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망상을 끊기 이전에 사람이 생각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 되지 않나? 아니, 생각을 자꾸자꾸 내야 그게 발전을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을 망상이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의심이 났단 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꾸 나오는 거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에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걸 망상이다 뭐다 하고 끊으려고 애를 쓰니 그게 칼로 물 베기지 어떻게 끊어집니까. 어떠한 물체입니까, 그게? 끊어지게.

어떠한 물체라면 칼로 끊으면 끊어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로 물 베기나 똑같습니다.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놈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냥 편안하게 자게 내버려 두지, 그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 자다가 깰 때도 있겠지 내내 잡니까? 내내 자도 할 수 없는 거고 내내 깨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을 성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정글을 넘어섭니까? 자든지 깨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바쁘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형상이 돼야만 그 자리를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 볼까요?

▲질문자1: 진정한 보살 정신은 모름지기 모든 중생이 성불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자신도 성불하겠다는 발원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수억겁의 습에 찌들어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불하기란 요원하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일조차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중생들은 자연히 제불보살의 가피를 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견성성불을 바라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비는 것도 타력 신앙이라 하여 배척할 일인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진짜로 믿고 들어가는데 하고 못하고가 어딨습니까!

▲스님: 그것도 타력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얘기했죠. 유마힐 거사가, 문수가 병문안을 왔을 때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회사를 하더라도 재료를 준비해 놓고 물건을 다 만들어서 시중에 내놔야 딴 사람들에게도 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을 먼저 제도를 시켜야, 아시겠습니까? 내 중생들을 먼저 제도를 시켜야 부처 · 법신 · 보신 · 화신이 충만해서, 화해서 바꿔져서 텔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응신이 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몸속에 있는 내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야 마지막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성불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 완성을 하려면 내 중생부터 다 제도를 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둘로 보고 망상이다 뭐다 하고, 또는 어떤 애고가 오면 은통 빌고 야단법석을 딴 데다 하니까, 그게 무슨 격이냐 하면 땅에 가다가 엎드러져 놓고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땅에서 엎드러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어떻게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보살에게 빌어도, 아무리 과거의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깨닫는 거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만이 똥 눌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어떤 것도 대신 해 줄 수 없다. 다섯 가지만은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니 내 마음 찾기인데, 아니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기인데 아, 누가 대신 밥을 먹어 줍니까?

▲질문자1: 『금강경』에 보면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닦고 배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닦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머무르는 마음이 아닌지요?

▲스님: 그러면 머무른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애가 와서 부르면 아버지 노릇을 합니까? 또 "여보" 하고 부르면 '내가 남편 노릇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남편 노릇을 합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아주 생각을 하고 합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 그리고 병고가 오더라도 '병고가 간다' 이러고선 옵니까? '내가 병을 앓겠다' 하고 앓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청정하다는 뜻은 더럽고 깨끗한 게 전체 한데 합쳐서 돌아가고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을 듣고서 지견이 열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견이 열립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지 아니, 머무르는 바가 있게 생활합니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야, 내가 집을 짓겠다.' 한다면 그것도 머무름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집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머물렀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을 전체 머무르는 바 없이 하고들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공의, 그 중심에 의해서 들이고 내는 데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찌들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할 양으로 애를 쓰고…. 할 양으로 애를 쓸 필요가 없이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전부들 성불하십시오. 하하하….

▲질문자1: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2월 말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목표로서 '신한국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 분야마다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스님의 견해와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어떠한 분야든지 불법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본다면 "왜, 스님이 그만큼 아신다면 경제 문제나 모든 일을 발란하게 하시지 왜 못하십니까?"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이거는 모두가 각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생존경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면 저기선 저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지배를 받는다면 저기선 지배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구가 집이라면 몇 사람이나 그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생존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모두 성장이 되거나 낙오가 되고, 또 성쇠가 되는 까닭에 지구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 한 마리를 기를 때 그 이듬해가 되면 금방 열 마리 스무 마리가 되고 수가 없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연쇄적으로 잡아먹지 않는다면 그냥 불어나죠. 먹고 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물자도 참 빈곤해지는 결과가 될는지 모르죠. 자연 법칙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게 쓰면 살아날 것이고, 넓지 못하다면 죽을 것이다.'라는 양단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저기 지나가는 사람 따귀를 한 대 때렸다면 말입니다, 맞은 사람이 그냥 푹 쓰러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덤비고 거기에서 못 이기면 내일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경쟁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요. 굶주리고 먹고 죽고 하는 것이 개미들 살림살이나 우리들 살림살이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좀 덩치가 크다 뿐이지, 살림살이의 용도가 좀 틀리다 뿐이고. 아, 왕개미, 검은 개미, 붉은 개미가 싸움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냥 토굴을 다 뺏고 먹을 것 다 그냥 압수하고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져서 모두 날뛰는데, 흙에 묻혀 죽고 다리가 잘려서 죽고 병신이 되고 온통 이러는 걸 봤습니다.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고 그런 것이지, 일리가 없다면 부처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음을 넓게 써서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되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천세계가 있고, 중천세계가 있고, 하천세계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땅 위로 다니는 세계가 있고, 날아다니는 세계가 있고 또는 그 모두를 종합해서 자유스럽게 사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정신세계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발견하시라 이거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이런 말을 한마디 들어 두신다면 언젠가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그 생각이 문득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것은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체탈도첩 공고

● 법 명 : 유심 ● 성 명 : 정기채
● 사찰명 : 관음정사
● 소 속 :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 직 위 : 부산교구 종무원장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67

상기인은 본 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종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승려로서 풍기를 문란케 하였기에 본 종 징계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7일자로 체탈도첩 하였음을 공고함.

불기 2549년 12월 27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징계위원회 호계원장 용 암

宗團害宗 行爲者 搋奪度牒 公告

정각사 주지겸 前울산교구 종무원장
● 속 명 : 박병선
● 법 명 : 海月
● 법 호 : 德性
● 승 번 : 901-044

대한불교 조동종 종헌 제18조 ④항. 종헌 제105조. 종법중 중앙종회법 제16조 ②항 ③항과 제17조 ⑤항에 해당하므로 제37차 정기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직위해제, 제적, 체탈도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서기 2005년 12월 28일자)

佛紀 2549(2005)년 12월 28일

大韓佛教 曹洞宗
總務院長 朴心月(德潭)

2006년 신개발 스님이 만든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흔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좌번호 : 농협 947-12-478941 예금주 조연순]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불자 세상보기

고 진 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은둔'하는 청소년들

컴퓨터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둔족'이 늘어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PC방이나 카페 등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몇 날 며칠을 몰입해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것에 대한 즐거움의 추구나 몰입이 지나쳐 청소년들 자신의 삶의 균형자체를 잃게 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컴퓨터 게임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은 대부분 말초적인 것이다. 즐거움의 질자체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컴퓨터 게임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항상 더 많은 만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유의 즐거움이 쉽게 중독 증세를 유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게임에 청소년들이 몰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컴퓨터 게임이 일종의 가상현실(cyber reality)속에서 실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은 실제의 현실과는 달리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의 현실과는 달리 가상현실에서는 윤리적, 법적 제재가 약하고, 개인의 책임의식도 희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상의 세계에서 청소년들은 현실의 '자아(self)'와는 다른 '가상적 자아(cyber self)'를 갖게 된다.

불행하게도 컴퓨터 게임중독증이 심각한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와 가상적 자아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비현실, 가상과 실상을 혼동하는 증세를 보임으로써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널리 유포,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과 같은 청소년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배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교육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혜는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려는 마음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문화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혹은 변별하려는 마음 '컴퓨터 게임할 시간이 있으면, 책 한권이라도 더 읽지'라거나, '컴퓨터 게임은 애들에게 아주 나쁜 거야'라는 식의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에서는 싹트지 않는다.

교육적 지혜는 탁월한 교육이론가 보다는 오히려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의 교육행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필자는 몇 년 전 게임중증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은 적이 있다. 지면 제약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을 아들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히 아들과도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날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게 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직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없더라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육의 지혜도 불교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교육적 지혜는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려는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도를 지키는 교육적 지혜는 디지털 시대에 요청되는 교육적 삶의 방식 가운데서도 가장 이상적임을 확신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예부터 선원에서는 음력 섣달 초하루부터 8일 성도재일까지 용맹정진을 하는 전통이 있다. 이번 부처님 성도절에도 몇몇 선원에서 정진의 고삐를 다잡아 사생결단을 내리려는 눈푸른 납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조계종은 정치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초연의 자세로 '실참실구'의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확고한 기풍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수행자가, 이름난 선지식이나 큰절의 어느 누구를 믿고 출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수행하여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따르는 신도들도 마찬가지다. 참된 수행이란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발심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온갖 고행으로 인욕행을 하며 수행하여 깨닫고 보니 이것이 곧 과거 일체 부처님들의 길이었고,

부처님 성도절, 수행점검의 날

어떤 중생도 이 길을 수행하여 깨닫지 못할 이가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길에 나서지 않았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고통 받는 중생들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병든 외자식을 보는 아픈 마음 같이 중생을 위해 해탈의 길을 가르치셨다.

성불에는 출가와 재가가 다르지 않다. 다만 출가수행자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즐기는 애욕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이며, 재가는 가정과 사회의 인연 속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 출가·재가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중생 염려하는 간절한 마음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연원이 우리들의 염원이 되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성도절은 가장 기쁜 날이다. 우리 불자들의 교조이신 석가모니가 온 우주법계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 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좇아 정진하지 않고 해마다 보내는 의례적인 성도절이 되어서는 성도절을 맞는 의미가 없다. 이번 성도절을 계기로 올 한해도 초발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염원을 나의 진실된 염원으로 삼아 깨달음을 향해 실천수행하기를 바란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남녀평등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임으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12월 27일 발표한 '2004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74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46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4시간 9분으로 조사돼 남녀의 가사노동 부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5배이상 가사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남녀간 불평등 비율이 무려 80%나 됐다. 한국 여성들은 사회생활과 가사노동의 이중 노동부담을 갖고 있는 셈.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의 평등, 여성의 진출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일이 봉건시대처럼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면 불공평한 일임에 틀림없다.

불평등하면 언젠가는 평화가 깨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는 국가 및 사회뿐 아니라 가까운 부부등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사에 남녀간 차별이 계속된다면 원만한 가정도 요원하다. 사회적으로도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어떤 것에서나 불평등을 용납치 않았다. 부처님도 교단내에서 평등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어떠한 특권도 갖지 않았다.

<대살차니건자 소설경>에서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라며 남녀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 했다.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요즘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김원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대불교의 군포교 캠페인을 보고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현대불교> 1면에 난 '2006군포교 합시다'를 봤기 때문이다. 척박한 군포교 현실에서 한줄기 단비처럼 반갑기만 하다.

사실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다른 부문도 그랬지만 군포교는 '미답의 세계'와 다르지 않았다. 발 벗고 나서는 스님들도 그리 많지 않고 일부 포교사와 재가자들이 자비를 털어 가며 법을 전하고 있지만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불교>와 군종교구가 사찰-군법당-기업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군포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1사찰-1군법당 결연, 1종립학교-1군법당 결연, 1단체-1군법당 결연, 1가정-1군법당 결연 등이 진행된다면 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포교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역시 군시절 열악한 군불교의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법당이 없어 매주 군교회 구석에서 법사도 없이 사병들끼리 법회를 보던 기억이 또렷히 남아있다. 이러한 여건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포교가 중요하다는 말을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교의 미래는 바로 포교에 있다.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현대불교>와 군종교구가 진행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주위 사람들과도 다시 군포교를 위해 함께 정진할 것을 권한다.

이영수(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다시 생각하는 종교화합

최근 현대불교신문(558호)에는 서울의 모 사찰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며 환하게 웃는 주지스님의 사진이 실렸다. 종교화합을 명분으로 기독교의 명절을 축하하는 모습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종교든 사회든 갈등을 풀고 화합을 열어가야하는 것이 세간과 출세간을 아우르는 불교의 사명이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스님의 모습은 환영받을 만 하다고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른 측면서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 지금처럼 불자들이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얼마전 학생들의 일부 교과서에서 성탄절이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문화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가 타종교의 기념일을 나서서 홍보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자칫 상대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만 종교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시간과 정재를 낭비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트리 앞 (붓다뉴스)

현대불교로 새 삶 배워요

나는 제자신의 크나큰 죄업의 인연으로 담장아래 몸이 갇힌 중생이다.

미혹한 죄로 인해 6년의 선고를 받고 마치 터널속에 들어간 듯 캄캄하던 앞날의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저 남보다 재수가 없어 그랬다고만 생각하며 삶의 절망과 체념으로 마흔고개를 넘겨가던 나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진 탓인지 이제야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 기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보낸다.

늦게나마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며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동업중생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배우고 있다.

얼마 전 무문관 결사에 들어가는 스님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부끄럽지만 감히 나 역시 그러한 처지라 자위하며 '조고각하'의 삶을 살고자 다짐한다.

현대불교신문을 보면서 지난날의 과보를 되풀이 하지 않고 새롭게 삶을 바꾸자 하는 여러 법우들과 열심히 정진하고자 한다. 매일 매일 좋은날 되기를 바라며 합장. 조명철(안양 교도소)

'현대' 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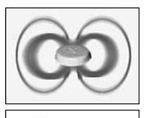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크리닉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선 괜찮다는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 12장부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도해를 보고 척추를 중심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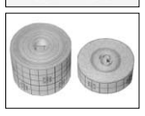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대형자석
1. 크기 : 지름 2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소형자석
1. 크기 : 지름 1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반 창 고
1. 크기 : 대형반창고 – 넓이 50mm 길이 10m
소형반창고 – 넓이 25mm 길이 10m
2. 특징 :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반창고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 권 + 대형자석 30개+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창고 1롤 + 소형반창고 1롤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실증자료

가톨릭의대
채정호(여의도 성모병원), 이창욱(강남 성모병원)교수팀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의 마크 조지 교수팀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우울증, 강박증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치료를 실시한 결과 확실한 호전반응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우울증외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분열등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팀이 생리통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트러브 박사가 루프스등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통증이 완전 해소됐으며, 당뇨병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열감, 자통, 저림같은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에 가깝게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발명특허 출원중 | 의료기기로 보사부 허가 필 | 보사부 의료기기 허가번호: 제2244호

내 몸의 통증을 내가 지배해야 무명장수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장이 최고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면 관련된 부위에 반드시 통증이 나타나며
이런 통증을 제대로 다스려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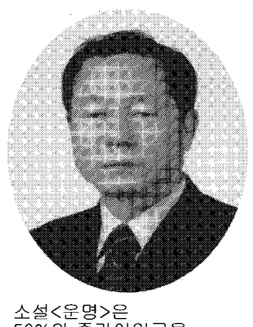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E-Mail : jibub311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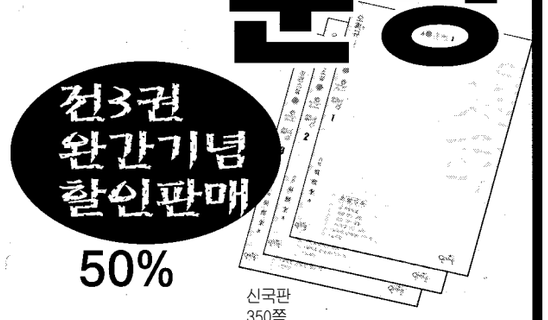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사랑받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삼성카드 '사랑의 펀드'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만나 보세요.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향해 삼성카드가 대한민국의 푸른 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사랑의 펀드'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후원 분야 : 백혈병 어린이, 결식아동, 빈곤아동, 학대아동, 미숙아

삼성카드 홈페이지 내 푸른 싹 키우기 캠페인을 클릭하신 후 카드 결제 및 보너스포인트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행복하게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삼성카드 사랑의 펀드란? 2003년부터 신용카드 회사 최초로 시작한 사회공헌 펀드로 기존의 모금운동과는 달리 고객과 삼성카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로서 2005년 9월 현재 모금액이 2억 원을 돌파,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SAMSUNG